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5일 화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33호

김정일최고사령관 제891군부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주체91년 3월 2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일 조선인민군 제891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대장들인 리명수, 현철해, 박재경,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리용철이 동행하여 왔다.

부대의 전방지휘소에 오르신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드넓은 방어전연을 바라보시면서 지형지물과 력량배치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군부대장으로부터 정황보고를 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모든 작전지역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굳건히 다지였으며 맡겨 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대가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혁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 갈 충성의 맹세로 가슴 불 태우는 미더운 병사들이 조국방선을 튼튼히 지키고 있기에 우리 혁명은 필승불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군부대의 임무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이어 군부대관하 녀성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구분대군인들의 훈련을 보시고 모든 군인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백절불굴의 용사들로 자라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교양실, 침실, 식당, 세목장을 비롯한 문화교양 및 후방시설들을 돌아 보신 그이께서는 구분대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훌륭한 생활환경을 마련하였으며 후방공급사업에서 놀라운 전변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의 군인들은 모두가 참으로 자랑스러운 새 문화, 새 생활의 창조자들이라고 하시면서 군복무야말로 가장 훌륭한 혁명의 학교이고 인간수양의 학교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날 구분대의 한중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세쌍둥이자매들인 윤황옥, 윤금옥, 윤산옥초급병사들을 만나 주시였으며 구분대군인들의 예술소품공연도 보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서는 구분대군인들에게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최근 동정

1 **김정일**최고사령관 조선인민군 제891군부대를 시찰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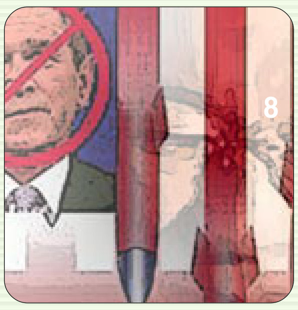
2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3)

세기와 더불어

4 3장 9절 왕청문의 교훈

칭송

6 조국통일에 관한 사명감을 심어주시며
6 축원의 노래
6 그날의 감격



한국민족민주전선

7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 무엇이 문제인가
7 강도적 논리
8 부쉬 서울 행각, 도둑고양이 신세
9 역적의 가문에서 나온 이회창

광고

15 인터넷 구국전선

조선중앙통신

10 주체 91, 3월 3일
11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금강산 행사의 파괴자

아리랑뉴스

12 ≪한나라당의 정권탈환, 끔찍한 악몽≫
12 ≪고발≫ 새해맞이 행사에 한나라당 반통일적 논평
12 인천시장 선거, 시민후보 찍겠다
13 부시 기관지와 미국 공화당 2중대
13 3.1절 수원에 울려퍼진 ≪안티조선≫
14 2단계 대테러전쟁 두고 미국내 논란
14 F-15 선정 때 부품 안정적 조달 어렵다
14 노동자들이 집을 나온 이유

운동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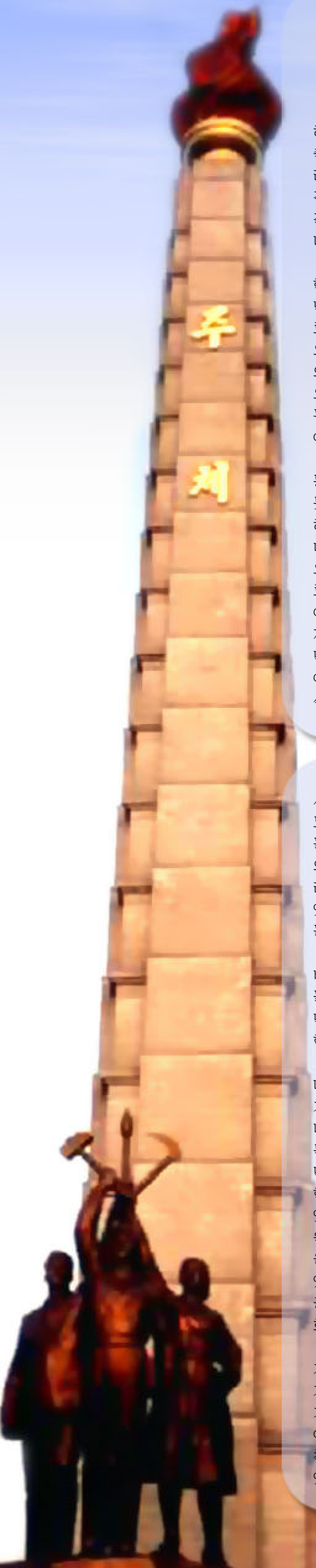
15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8)

조국통일3대헌장

16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 (3)

북과 남 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 측 대표들과 한 담화 / 1972년 5월 3일, 11월 3일



2.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할 데 대하여

나는 남조선 측 대표를 다시 만나게 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는 남조선 측에서 대표가 혼자서 왔었지만 이번에는 여러분이 같이 왔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이와 같은 접촉이 잦게 되면 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는 일정한 전진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는 우리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서로 만나지 조차 못하던 것이 오늘은 대표들이 오고가며 만나고 있으니 이 자체가 벌써 하나의 전진인 것입니다. 북과 남의 대표들이 서로 오고가며 자주 만나 면목도 익히고 의견도 나누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나서는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고 분열을 지속시키면 우리 민족은 영원히 둘로 갈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절대로 둘로 갈라져서는 안됩니다. 조선사람은 오랜 옛날부터 한 강토 위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같은 핏줄을 이어받았으며 하나의 문화와 하나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민족은 민족성도 강하고 민족적 자존심도 높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36년 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내선일체≫요 뭐요 하면서 조선사람의 성까지 일본식으로 고치는 놀음을 하였지만 끝내 조선사람을 일본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오늘에 와서 어떻게 둘로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민족의 분열을 허용하여서는 안되며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합니다.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은 북반부동포들이나 남반부동포들이나 다 같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조국통일을 염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찾아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조선언론계에서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에도 ≪대화 있는 대결≫이요, ≪대화 있는 경쟁≫이요 하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결이나 경쟁이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서로 승부를 겨룬다는 뜻인데 승부를 겨루면 이기는 쪽과 지는 쪽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과 경쟁을 한다면 몰라도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여서는 안됩니다. 같은 민족끼리 대결하고 경쟁하면 민족의 단합을 이룩할 수 없으며 조국의 통일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북과 남은 대결하고 경쟁할 것이 아니라 합작하여야 합니다. 합작이란 힘을 합쳐 공동으로 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이제는 합작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북과 남은 대화를 하는데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면 그 과정에 민족의 힘이 더욱 커지고 조국통일의 기초가 튼튼히 닦아질 것입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여야 우리 앞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경제분야에서부터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 합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을 하나씩 하나씩 같이해 나가야 서로 오해를 풀고 이해를 깊이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신임한다고 하여서는 누가 무슨 속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실지 일을 같이해 나가느라면 오해하고 있던 문제도 풀리고 신임이 두터워질 것이며 민족적 단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많은 인구와 풍부한 자연부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과 남이 합작하면 우리 나라의 민족경제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이 경제적으로 합작하면 인민생활문제도 더 잘 풀 수 있고 우리 인민들을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경제적으로 합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북과 남은 지하자원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고 분업과 교역도 발전시킬 수 있으며 과학기술의 연구성과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지하자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쇳돌이 무진장합니다.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자원을 많이 약탈하여 갔다고 하지만 그들은 수박겉질을 핥다가 간 셈입니다. 우리의 탐사일꾼들은 일제놈들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한 곳에서 많은 쇳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천일대에서도 몇 억 톤의 쇳돌을 찾아냈고 황해남도에서도 몇 십억 톤의 쇳돌 매장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풍산을 비롯한 북부내륙지대에도 굉장히 많은 쇳돌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탐사일꾼들이 초보적으로 찾아낸 쇳돌만 하여도 100억 톤 이상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의 쇳돌은 품위도 매우 높습니다 . 우리 나라 쇳돌의 철 함유량은 다 35%이상입니다. 우리 나라의 쇳돌은 세계적으로도 질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본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쇳돌이 부러워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북반부에는 쇳돌 뿐 아니라 연, 아연, 동을 비롯하여 다른 광물자원도 많습니다. 일제놈들은 우리 나라에 니켈이 전혀 없다고 하였지만 우리는 자체로 니켈을 찾아내어 여러 가지 합금강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공업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원료를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올 수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원료를 두어두고 면 다른 나라에 가서 사오겠습니까. 북과 남이 힘을 합쳐 우리 나라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원료를 사오지 않고도 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여러 부문의 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나라의 경제적 위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직후부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왔으며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매우 높은 수준에 올라섰습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 철로 기계를 만들어 팔아야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도 평등한 원칙에서 가질 수 있고 인민들의 생활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 트랙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계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기계를 사가겠다고 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는 수산자원도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나라 동해에는 해마다 500만~600만 톤의 명태가 떼를 지어 밀려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추정한 숫자이지 실지로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똑똑히 알지 못합니다. 명태가 한창 밀려올 때에는 명태 떼의 폭이 3,000 메타나 되고 길이가 5,000 메타나 되며 깊이는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명태가 떼를 지어 밀려오지만 우리는 지금 기껏 하여 60만 톤밖에 잡지 못합니다. 이것은 밀려온 명태를 10%밖에 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명태는 50%까지 잡아도 그 자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동해에서 해마다 명태를 250만 톤씩 잡아내도 일없습니다. 남북의 어민들이 힘을 합쳐 함께 물고기잡이를 한다면 많은 명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민들을 다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이 경제분야에서 분업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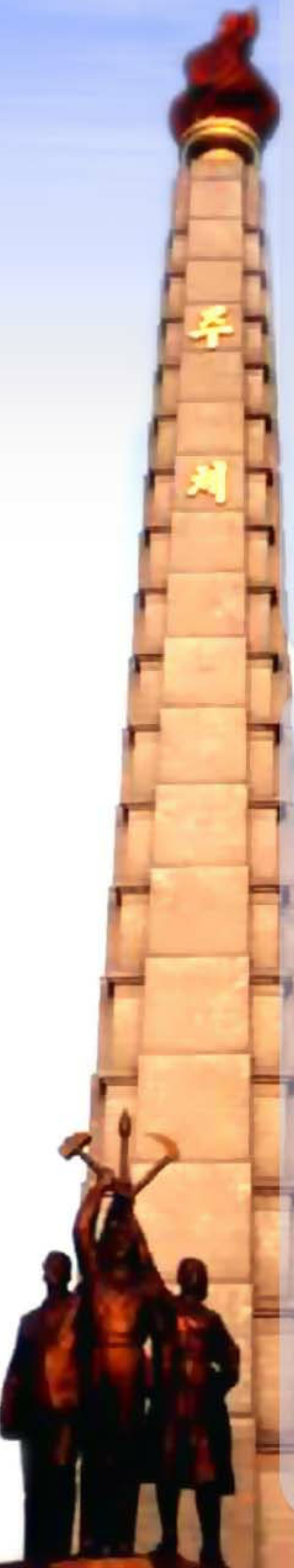
우리는 무엇을 생산하고 남조선에서는 무엇을 생산한다는 식으로 분담하여 경제를 발전시켜도 서로 부담이 많이 적어질 것이며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로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문화분야에서도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문화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여야 단일민족으로서의 조선민족의 고유한 민족적 특성을 보존할 수 있으며 우리의 민족문화를 통일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북과 남은 언어학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하여 우리의 민족어를 통일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지금 북과 남의 사람들이 접촉하여 말을 하여도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말마디들이 적지 않으며 그것으로 하여 서로 오해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북과 남 사이에 언어생활에서 차이가 커 가면 민족의 분열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어생활의 차이로 하여 우리 민족이 서로 다른 민족으로 갈라지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은 합작하여 북과 남 사이에 말과 글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연구사업과 조절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의 언어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협의하면 우리 나라 말과 글의 우수성을 살리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과학분야에서도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재능 있는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과학분야에 대하여서는 남에 있는 학자들보다 북에 있는 학자들이 더 잘 알 수 있고 또 어떤 과학분야에 대하여서는 북에 있는 학자들보다 남에 있는 학자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과 남의 학자들이 힘과 지혜를 합치면 과학연구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국가로 빨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육분야에서도 합작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이 체육분야에서 합작을 실현하면 국



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단독으로 국제경기들에 나가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군 합니다. 만일 북과 남이 단일 팀을 구성하여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나간다면 패권을 쥘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조선민족은 투지가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투지가 강하다는 것은 세상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를 하는 것을 이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적인 체육경기들에 북과 남에서 우수한 선수들을 뽑아 단일 팀을 구성해 가지고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은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합작할 뿐아니라 정치분야에서도 합작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은 마땅히 정치적 합작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합작하여야 경제분야에서의 합작도 잘 할 수 있고 문화분야에서의 합작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물을 고찰하는 방법과 우리가 사물을 고찰하는 방법이 다른 것만큼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매개 문제를 하나씩 떼여놓고 고립적으로 보지마는 우리는 모든 사물이 서로 연관되어있고 호상 작용한다는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들이 서로 연관되어있고 호상 작용 속에서 발전하는 것은 사회의 운동법칙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문제도 다른 문제와의 연관 속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옳게 풀 수 없는 것입니다. 정치문제를 풀려면 경제, 문화 문제를 풀어야 하고 경제, 문화 문제를 풀려면 정치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북과 남이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않으면 경제, 문화 분야에서 합작하려고 하여도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적십자단체들 사이의 회담에서 토의되고 있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는 문제만 보더라도 얼핏보면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 같지만 남북사이에 정치적 불신임이 존재하는 조건에서는 간단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 때 남조선에서 들어온 대표들 가운데 북반부에 친척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그에게 당신의 친척이 여기에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는가고 하니 그는 후에 만나보겠다고 하면서 만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북반부에 있는 친척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남조선에는 북반부에 있는 친척을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북반부에 친척이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힘만으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제대로 찾아줄 수도 없고 서로 자유롭게 만나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을 찾는 문제가 원만히 풀리자면 반드시 남북 사이의 정치적 합작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비를 줄이는 문제도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여야 풀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남북공동성명에는 북과 남 사이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조국통일을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할 데 대한 문제가 밝혀져 있습니다. 남북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데 대하여 공동성명은 발표하였지만 앞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로부터 쌍방이 서로 전쟁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대포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 우리는 자체로 대포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군대가 많으며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이 큽니다. 외래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를 방위하는데는 남북의 군대가 모두 20만 명만 있어도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합작하면 북과 남 사이의 신뢰를 깊게 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남북의 군대를 각각 10만 명 정도로 줄여 인민들의 군사적 부담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여야 경제, 문화, 군사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것만큼 우리는 경제적 합작과 문화적 합작을 하는데 그치지 말고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는 데로 나가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합작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 사이에는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남북조선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결코 정치적으로 합작하지 못할 조건으로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남조선에 사회주의를 무서운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주의는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은 전후시기부터 입니다. 나는 1955년 4월에 발표한 테제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할 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습니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은 전후 우리 나라의 현실로부터 제기된 절박한 요구였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이 잿더미로 되고 공업과 농촌경리가 여지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쟁과정에 빈농과 수공업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농촌의 중농과 부농도 거의 다 파산되었으며 도시의 상공업자들도 파산 몰락하여 수공업자나 소상인과 같은 처지에 굴러 떨어 졌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들은 서로 힘을 합치지 않고서는 살아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으며 협동화를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도시와 농촌에서 개인경리를 협동화할 데 대한 방침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자원성의 원칙에서 실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촌의 부농과 도시의 개인상공업자들을 수탈하는 방법으로 청산한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협동경리에 망라하여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개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부림 소와 농기구가 모자라고 노력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농업협동화를 실현하여 농민들의 힘을 합침으로써 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농촌경리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공화국북반부에 세워진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조선사람들이 북반부에 들어와서 현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면 사회주의 제도가 결코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북이 정치적으로 합작하고 단결하지 못할 조건이 없습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적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연방제는 지금 남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와 북에 존재하고 있는 정치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북과 남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각층 대표들, 저명한 인사들이 광범히 모여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고 거기에서 민족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며 대외적으로 하나의 국호를 가지고 활동하면 연방제가 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고려라는 이름을 살려 고려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남북연방제가 실시되면 북과 남 사이의 연계와 합작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전면적으로 실현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대외적 권위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민족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대외적으로 두 개 나라로 활동하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우리 나라가 분열된 상태에서 북과 남이 제각기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연방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더 논의하면 보다 좋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북과 남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합작을 실현하자고 하는데 대하여 당신들도 다른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빨리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서로 오해하고 불신임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쌍방이 서로 오해와 불신임을 없애야 북과 남 사이의 합작을 빨리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미국군대를 내보내고 일본을 끌어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만큼 당신들을 믿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조선 측이 우리를 오해하고 불신임하는데 있습니다. 같은 동포끼리 만났는데 오해하는 문제가 있으면 다 털어놓고 말하여야 합니다. 의견이 있는 것은 딴 주머니에 감추어두고 미리 준비한 연설문이나 읽고 가서는 오해를 풀 수 없습니다. 오해를 풀려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여야 합니다. 북과 남 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합작을 실현하려면 또한 서로 욕질을 하면서 상대방을 비방 중상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데 대하여 인내성 있게 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심으로 우리와 합작하려고 한다면 반공선전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우리도 남조선 측과 합작하려고 하는 것만큼 당신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남조선 측 대표를 만났을 때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기 위하여 북과 남의 공동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이번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조절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조절위원회를 빨리 구성하고 잘 운영하여야 합니다.

조절위원회는 빈말공부만 하지 말고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며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나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조절위원회가 구성되면 신임의 표시로 서로 군대를 줄이고 정치범을 석방하며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문을 열어놓은 이상 닫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문을 닫으면 우리 민족은 물론, 세계인민들도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과 남 사이의 문을 열고 일단 일을 시작한 바에는 솜씨를 보여 조선민족의 영예를 온 세계에 떨쳐야 합니다.

조국통일은 빨리 실현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통일문제를 질질 끌어서 좋을 것이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모두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합니다.

(끝)

1권 제3장

길림시절

1. 선진사상의 탐구
2. 상월선생
3.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4. 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5. 단결의 시위
6. 안창호의 시국대강연
7. 3부통합
8. 차광수가 찾은 길
9. 왕청문의 교훈
10. 철창속에서

9.왕청문의 교훈

1929년 가을에 국민부는 흥경현 왕청문에서 동만청총과 남만청총을 통합하기 위한 대회를 소집하였다. 이 대회를 남만청총대회라고 하였다.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3부의 합작이 실현된 객관적 조건에 맞게 청년운동에서도 분산성을 퇴치하고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청년단체의 통합대회소집을 발기하고 대회기간에 조선청년동맹이라는 단일조직을 내오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대회를 통하여 청년조직들에 스며들어온 새 사조의 영향을 막고 만주일대에 있는 모든 조선청년단체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고 하였다.

우리는 동만청총과 남만청총과 같은 청년조직들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대회를 국민부사람들에게만 맡겨둘수는 없었다. 남만청총과 동만청총에는 종파분자들의 영향까지 적지않게 미쳐 그 내부가 복잡하였다. 자칫하다가는 대회를 계기로 오히려 청년운동이 더 분렬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나는 도착하자바람으로 현묵관을 찾아갔다.

현묵관은 국민부가 나온후부터 길림에 있지 않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국민부본부가 성주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으니 이번 대회에서 한뭋 단단히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고는 회의가 끝날 때까지 다른데 숙소를 정하지 말고 자기집에 있으면서 청년운동의 장래에 대하여 토론해보자고 하였다.

나는 현묵관의 성의를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그 청을 사양하고 나와 외가켠으로 먼 친척이 되는 강홍락이네 집에 숙소를 정하였다. 대회준비성원들이 들락날락하는 현묵관의 집은 내가 있을 형편이 못되었다.

강홍락은 민족주의좌파에 속하는 지식인으로 화흥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화흥중학교는 동만의 대성중학교처럼 독립군들이 민족주의사상교양을 하는 학교였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민족주의교양을 해도 나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뿐이였다. 간판은 민족주의인데 내용은 공산주의였다.

강홍락의 처는 오신애라고 부르는 용모가 아름다운 현대풍의 녀성이였다. 노래를 잘 불러 남만지방의 조직들에서는 이름대신 ≪꾀꼴새≫하는 별명으로 통하였다.

국민부는 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온 청년조직대표들로 예비회의를 열고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선출하였다. 그 위원회에 최봉을 비롯한 우리 동무들이 여러명 들어갔다. 우리는 화성의숙에 다닐 때부터 그와 낯을 익히였다.

남만청총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최봉은 그때 조선인 거주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설을 많이 하였다. 그가 화성의숙에 와서도 강연을 하여 인기를 끌었다. 리론수준도 있고 일욕심도 있는 똑똑한 사람이였다. 그후 그는 우리와 가깝게 지내면서 공산주의편으로 기울어졌다.

나도 준비위원으로 뽑히었다. 준비위원회성원들은 진지하게 토의하여 누구에게나 다 접수될 수 있는 대회결의안초안을 작성하였다. 그밖의 다른 문건들도 우리의 의도대로 준비하였다.

나는 왕청문에 도착한 다음날부터 청년대표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화흥중학교 마당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조직하였다. 여러 청년조직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낯도 익히고 그들에게 영향도 주자는 것이였다. 미리 말을 해두지 않으면 그들이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사상적으로 롱락될 수 있었다. 나는 이 모임에서 조선청년운동이 진정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면 사상의지적으로 단결해야 하며 이 단결은 새로운 선진사상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연설내용이 인차 국민부지도자들에게 알려진 모양이다. 나는 김리갑을 통하여 그들이 신경을 도사리고 나의 행동을 주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류하를 떠날 때 차광수가 걱정한 것이 공연한 일이 아니였다.

≪ㅌ,ㄷ≫의 첫 성원중의 한 사람인 김리갑은 화성의숙이 페교된후 왕청문에서 얼마쯤 떨어져있는 전경숙이란 약혼녀의 집에 거처를 정하고 그 일대를 혁명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다. 전개력도 있고 담이 큰 사람이어서 일을 통이 크게 잘하였다. ≪반공≫을 기발처럼 휘두르고 있은 민족주의자들의 활동지역에서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였다.

김리갑은 대회에 방청으로 참가하려고 왕청문에 와있었다. 내가 화흥중학교에서 연설을 한 다음날 그는 나를 찾아와서 전경숙의 집에 저녁을 차려놓았으니 같이 가서 회포나 나누자고 하였다. 그가 나를 초청한 것은 국민부의 동향을 알려주기 위해서 였다.

김리갑은 국민부사람들이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다 체포할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그는 나더러 국민부가 손을 쓰기 전에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자기도 형편을 보고 정 곤란하면 그날밤중으로 왕청문을 떠나겠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현묵관이 국민부간부들이 다 모인 장소에서 성주도 우리와는 사상이 다른 것만큼 결판을 지어야겠다고 선포했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나는 미리부터 몸을 피할 생각은 없었다. 내가 국민부에 해를 끼친것도 없는데 그들이 감히 나를 잡아가겠는가 하는 배심이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선전을 한다고 현묵관이 나를 문제시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았다. 내가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것은 길림에 있는 민족주의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 물론 현묵관도 얼마간 한 지붕아래서 같이 살았으니 이것을 짐작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체포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인가. 우리는 국민부를 타도하자는 것도 아니고 새 사상에 기초해서 모든 조선청년들이 단결하자고 호소했는데 그것이 박해의 리유로 될 수 있겠는가.

나는 필요한 경우 국민부의 간부들과 담판이라도 할 배짱이였다. 내가 강홍락의 집에 돌아오니 오신애가 어데 나갔다 들어와서 불길한 소식을 또 전해주었다. 국민부군대들이 최봉을 비롯한 몇명의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벌써 체포해갔다는 것이였다. 오신애는 나도 그들이 찾고 있은 대상들가운데 한 사람이니 빨리 몸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격분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왕청문에 온 첫날부터 남만청총대회를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려고 여간 애를 쓰지 않았다. 대회의 결의안도 그런 방향에서 만들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부의 상층은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테로로써 대답하려는 것이였다.

나는 국민부에서 청년사업을 책임진 고이허를 찾아가 담판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차광수도 국민부의 비행에 대한 소식을 얻어듣고 몇명의 반제청년동맹원들과 함께 강홍락의 집으로 달려왔다.

그들은 국민부의 습격대상인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이 우선 왕청문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변이 위태롭다고 해서 몸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들의 목적이 이루어질수 없게 된 지금 남은 방법은 국민부의 테로분자들과 담판을 하여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민족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이룩하자면 언제든지 한번은 속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야 하였다. 비록 분위기는 살벌하였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체포된 동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그들을 꼭 만나야 하였다. 그것도 내가 가야 했다.

나는 동무들을 설복한 다음 차광수에게 뒤일을 부탁하고 고이허를 찾아갔다.

고이허는 국민부의 보수파가운데서도 가장 경향이 나쁜 사람이였다. 민족주의진영에서는 ≪리론가≫로 소문난 인간이였다. 내가 방에 들어서자 그는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였다. 내가 자기를 찾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나는 고이허에게 최봉을 비롯한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왜 체포하였는가고 직방 들이댔다. 고이허는 자기들도 지금 그들의 행처를 찾는 중이라고 시치미를 뗐다.

나는 앞뒤가 다른 고이허의 태도에 더욱 분격을 금할 수 없었지만 될수록 마음을 갈아앉히고 그를 설복하려고 하였다.

국민부는 청년운동을 통일한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회의에서 청년들의 토론을 들어보기도전에 결의안초안을 보고 질겁하여 대표들을 체포했으니 이것은 너무 조급하고 독선적인 행동이다, 대회문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말해달라, 초안인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치자, 당신들이 대회주최자인 것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대목이 있으면 청년들을 불러서 의논을 해야 옳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가면 어떻게 마음놓고 새사조를 섭취할 수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견결한 반일투사로 자라날수 있겠는가고 들이댔다.

고이허는 청년들이 지나치게 나가는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했을뿐 체포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한다고

➡

또 거짓말을 하였다.

나는 고이허에게 당신도 서울에서 학생운동을 한 일이 있고 일경들의 체포를 피해 쏘련으로 가려던 사람이니 공산주의가 어떤 사조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치고 공산주의에 대한 리해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자신만 해도 그렇다, 나로 말하면 독립운동자들이 설립한 화성의숙에 다니였고 길림에 와서도 독립군지도자들의 집에서 3년을 보냈다, 이런 나도 민족주의운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운동을 하게 되었다, 우리 청년들이 새 사조를 신봉하는 것은 공산주의리념을 따르는 길이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는 길이고 우리 민족의 장래에 행복을 가져오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당신들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싸움에 나선 사람들인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체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고 항변하였다.

그리고는 고이허에게 새 사조를 따르는 청년들을 박해할 것이 아니라 손을 잡고 일제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했다.

사실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청년들을 제껴놓으면 남만청총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형편에 있었다.

고이허는 코웃음을 치면서 국민부는 남만청총을 내던지면 내던졌지 공산당의 손에 넘겨줄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그 리유를 물으니 그는 반석현에서 엠엘계의 종파분자들이 몽치단이라는 테로단을 무어가지고 민족주의자들을 습격한 사실을 실례로 들면서 이런자들과 어떻게 손을 잡을 수 있겠는가고 빈정거렸다.

우리도 1929년 여름에 엠엘파의 몇몇 인물들이 삼원포일대에서 민족주의자들을 타도하려고 국민당군벌의 경찰에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이 반란을 기도한다는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주장하는 우리들까지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몽치단을 동원하여 반제청년동맹간부들을 습격하는 망동까지 부리었다. 류하일대의 반제청년동맹원들이 최창걸이 지도하는 무장소조의 호위를 받아가면서 활동하게 된 것도 이 몽치단의 폭행때문이였다.

나는 고이허에게 우리는 그런 종파쟁이들과는 전혀 다른 청년들이라고 다시 설복하였다. 그들은 민족주의자들과 싸울 뿐 아니라 우리와도 싸우고 자기들 호상간에도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끊임없는 싸움을 하고 있은 추물들인데 그런자들과 우리를 한저울에 올려놓으면 안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나 고이허는 나의 성의있는 설복을 끝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만일 당신들이 끝끝내 청년들의 기세를 꺾으려든다면 씻을 수 없는 죄악을 력사에 남기게 될 것이다, 당신들이 비록 몇명의 육체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청년대중의 사상은 억제할 수 없을 것이다, 좋다, 당신네가 나를 죽이겠으면 죽이라, 나는 이미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만큼 말했으면 좀 자극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 완고한 대결자세를 취하면서 그날밤 왕청문에 주둔하고 있은 독립군무력에 비상소집령을 내리고 우리에 대한 체포소동을 벌이었다.

나는 류혈을 막기 위하여 차광수를 급히 삼원포로 돌려보냈다. 국민부의 우두머리들이 류하현의 우리 동무들한테까지 손을 뻗칠수 있었다. 남만청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모여온 공청원들과 반제청년동맹원들도 그 밤으로 왕청문에서 떠나게 하였다.

나는 동무들에게 국민부가 남만청총대회를 소집해놓고 진보적인 청년들을 모해하고 있으니 대회에서 탈퇴하고 그들의 테로행위에 대해서는 성토문을 써서 발표하는 방법으로 만천하에 고발하자고 하였다.

이렇게 되어 남만청총대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나도 왕청문에서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동무들은 최창걸이 활동하고 있은 류하현 삼원포에 가서 성토문을 작성하여 만주각지에 보내고 우리끼리 대회를 해보자고 제의하였다. 그런데 독립군세력이 강한 삼원포에 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였다.

나는 삼원포에 갈가, 릉가라는 곳으로 갈가 하고 망설이던 끝에 릉가에 가서 차후의 활동방향을 결정짓기로 하였다. 릉가에서 숨을 좀 돌리고 길림에 들렀다가 거기도 있을 재미가 없으면 무송으로 가서 국민부의 테로선풍이 잦아들 때까지 대중조직들에 대한 지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나는 그날저녁으로 강흥락의 집에 돌아와서 ≪내가 여기서 자다가는 잡힐것 같습니다. 릉가에 가겠으니 로자나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강홍락은 그 말을 듣자 한숨을 쉬며 걱정하였다.

≪자네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뛰겠는가?≫

≪큰길로 냅다뛰어서 80리만 가면 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릉가에 가면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 있으니 얼마동안은 견디여낼 수 있다고 말했더니 강홍락부부는 그제서야 안도감을 느끼는듯 도중식사와 판대기엿 몇개를 보자기에 싸주었다.

문광중학교 출신의 조직원이란 신영근을 말한다. 신영근은 릉가의 한흥학교에서 교장으로 사업하고 있었다. 나는 이튿날 점심때가 다되어서야 릉가에 도착하였다.

한흥학교 고등과의 녀학생들은 나에게 있는 성의를 다했다. 강동에서 반제청년동맹성원으로 활동하다가 한흥학교에 온 신영근의 애인 안신영이 동무들과 함께 녹두묵과 시원한 랭국을 만들어 푸짐하게 점심상을 차려주었다. 그 점심밥을 얼마나 달게 먹었던지 지금까지도 인상에 깊이 남아있다.

나는 식사를 한 다음 피곤을 무릅쓰고 한흥학교의 운영정형을 이것저것 알아보았다. 그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었다. 밤새 80리를 걸어오느라고 녹초가 되었던 것이다. 그날 신영근은 내 잠을 깨울가봐 상학종도 울리지 못하고 밖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을 한아이 한아이 손짓으로 불러들여 수업을 했다고 한다.

나는 릉가에 머물러있을 때 국민부사람들이 체포한 대회준비위원회성원들을 끝끝내 처형하였는 소식을 들었다. 그자들은 최봉, 리태희, 지운산, 리몽렬, 리광선, 조희연 등 스물한두살밖에 안되는 6명의 전도양양한 청년들을 왕청문 괴모지구 산골짜기에서 학살하였다.

최봉을 비롯한 6명의 청년들은 최후의 순간에≪우리는 로력자대중의 립장에서 자신의 희생을 이미 각오한 바 있다. 그러나 너희들의 손에 죽기는 너무 원통하다.≫는 말로 국민부의 죄행을 절규하면서 ≪혁명가≫를 부르고 ≪혁명승리 만세!≫를 웨치였다.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은 그후 학살당한 6명의 가족들가지 모조리 붙잡아다가 없애치우려고 책동하였다. 고이허는 나에게 자기들의 살인흉계를 알려준 오신애까지 끌어내다가 무참하게 학살하였다.

우리는 릉가에서 피눈물을 머금고 국민부지도부의 죄행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토문을 썼다. 그 성토문을 최창걸이 활동하고 있은 삼원포에서 등사하여 발표하게 하고 각지의 혁명조직들에도 보내여 성토대회를 열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대중의 전위투사들을 공산청년이라고 하여 학살한 소위 국민부란 반혁명분자 몇개인의 영리장이며 살인음모소이며 중국의 로동자, 농민을 학살한 장개석의 졸도와 다름없는 역적들의 집단이라고 규탄하였다.

이 성토문을 낸후부터 새 세대의 공산주의자들과 국민부사이에는 정면대립이 조성되었다.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은 우리 계렬의 청년들을 만나기만 하면 덮어놓고 ≪토벌≫하였다. 그자들의 손에 그때 끌끌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희생되었다.

이렇게 되어 우리의 가슴에 국민부에 대한 원한이 단단히 맺히었다.

왕청문사건이 있은 다음 나는 가슴이 아파 며칠밤 잠을 자지 못하였다. 나라를 찾아보자고 혁명의 길에 뛰어들었는데 같은 민족한테 피해를 당하는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다.

우리는 ≪ㅌ,ㄷ≫를 결성한 첫날부터 항상 민족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을 모색해왔다. 안창호의 사상이 개량주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는 그의 사고방식을 비판하면서도 그가 붙잡혔을 때에는 주저없이 그를 감옥에서 석방하기 위해 투쟁했다. 3부통합회의가 권력다툼으로 시간을 질질 끌 때에는 애국력략의 단합을 바라는 우리의 진정을 담아 예술의 힘으로 민족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렸으며 독립운동단체들이 국민부로 통합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뻐하고 환영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그 성의를 외면하고 야수적인 살륙으로 우리를 대하였다.

나는 그때 릉가에서 ≪조선사람은 비록 세사람이 모여도 단결하여 일제와 싸워야 한다.≫고 하던 차천리로인의 말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상기하였다.

독립운동자들가운데도 단결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다. 대중은 모든 애국자들이 다 주의나 단체나 신앙에 관계없이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반일항쟁에 떨쳐나설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은 민중의 이 기대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리었다.

지금도 왕청문의 참사를 회고할 때면 당시의 분노가 온몸에 그대로 되살아나군한다. 나는 그 비극을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 민족내부에서 그처럼 참혹하고 무의미한 살륙이 더는 재연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군 한다. 고이허나 현묵관도 세상에 살아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와 인정적으로 그처럼 가까우면서도 리념상의 차이로 같은 길을 걷지 못했던 현묵관은 그후 장사에서 테로분자들에게 살해되었다. 결국 그자신도 테로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

그의 딸 현숙자가 해방후 상해림시정부인사들을 따라 조국에 돌아와 서울 반도호텔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지금 당력사연구소에 보관되어있을 것이다.

그가 낳은 자식들은 분렬된 조국의 북쪽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조선의 민족해방투쟁력사는 공산주의자들이 가는 길이야말로 애국애족의 길이며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참되고 견실한 애국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오늘 국토가 분렬되어있고 외세의 간섭이 심한 조건에서 민족단합이 첫째가는 생명이라는 것을 절감할 때마다 나는 왕청문의 비극을 생각하군 한다.

일화

조국통일에 관한 사명감을 심어주시며

박소영 / 구국전선 제470호 - 주체91, 3월 1일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는 것을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지니신 자신의 가장 숭고한 사명감으로 여기시고 그 실현을 위한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

주체66(1977)년 7월3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판문점을 찾으셨을 때의 일이다.

장군님께서는 이날 ≪나는 이곳에 오면 하루빨리 분계선을 없애야 하겠다는 사명감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분계선지구에 나올 때마다 판문점에 들리군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민중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는 것을 필생의 위업으로,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기시는 장군님께서는 간부들을 둘러보시며 동무들은 나를 믿고 나는 동무들을 믿고 우리 모두 힘을 합치고 분발하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조국통일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은 간부들의 심장 속에 통일에 대한 사명감과 조국통일위업에 한몸 바칠 각오, 드팀없는 의지를 깊이 심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어느 해인가 민족의 통일전망에 관해 밝혀주시면서 조선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다고, 조선은 둘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이라고, 조선은 하나다, 이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하나의 조선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과 강철의 의지는 애국, 애족의 숭고한 이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는 분이시기에 장군님의 심중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진정 조국통일위업에 바치시는 장군님의 사색과 열정은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다.

주체55(1966)년 3월19일 아침이었다.

간부들과 함께 해주 수양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바다건너 강화도를 바라보시며 오래도록 서계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수양산에 올라 남녘땅을 바라보니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더욱 솟구쳐 오른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햇살이 퍼지는 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굽어보시며 ≪조국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지상의 과업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상쾌한 아침을 맞는 그 길지 않은 시간에도 조국통일문제로 마음쓰시며 거룩한 영도의 자국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모든 사색과 열정은 겨레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앞당겨오기 위한 애국애족의 위업에 바쳐지고 있다.

송시

축원의 노래

구국전선 제470호 - 주체91, 3월 1일

해솟는 아침에도 별뜨는 저녁에도
북녘을 우러러 우리 소원 불탑니다
선군의 총대아래 살아가는 이남민중
아 민중의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하나된 충의로 안녕을 바라옵니다

한강에 비내리고 태백에 눈덮여도
경향의 우리 마음 뜨겁게 불탑니다
자주로 존엄지켜 긍지높은 우리 겨레
아 민족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하나된 충의로 안녕을 바라옵니다

세기는 바뀌우고 해와 달 흘러가도
받들어 모셔갈 우리 심장 불탑니다
통일의 서광 비쳐 희망넘친 우리 민족
아 통일의 태양 **김정일**장군님
하나된 충의로 안녕을 바라옵니다

칭송

그날의 감격

김형진 / 구국의 소리 주체90, 9월 28일~30일

1984년 9월, 17년전 9월은 이남민중이 잊지 못할 계절이다.

17년이라면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거의 두배가 되는 세월이다. 하지만 오늘도 그때를 못잊어하는 것은 그만큼 감격이 컸기 때문인 것이다. 감격이란 말은 사전상 표현을 그대로 쓰면 고마움을 느끼다 또는 마음속에 깊이 느껴 격동됨을 뜻한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고 고마왔으면 강산이 두번이나 변하는 긴세월 동안이나 잊지못해 하겠는가.

돌이켜보면 그때 8월말, 9월초간에 내린 집중호우는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휩쓸었었다. 당국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350여명의 사상자와 20만 7천여명의 수재민이 발생했고 3만 6,700여채의 가옥이 파손됐다. 그리고 많은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됐다고 했다. 겨우 목숨만은 건진 수재민들은 먹을 것, 입을 것, 쓰고 살 것이 없어 아우성이였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겹쳐 쓸었다. 그야말로 수재민촌들은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 이남민중이 해마다 빈번히 당하는 수재였지만 그해의 수재는 60년만에 처음 당하는 참으로 혹심한 참변이였다. 아이, 어른 할것없이 구원을 바라며 손짓했다.

헌데 이땅의 당국자는 자기 국민이 생사기로에 처했는데도 눈길 한번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집권을 꾀해서 일본에로의 아부행각을 떠났었다. 몰인정이라면 이보다 더 한 몰인정이 어디 있으며 무례한이라면 그 당국자만한 무례한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한 나라의 어버이가 돼야할 당국자의 처사치고는 너무나도 저속한 처사였다. 이런 처사는 인류사에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

한편 해방자, 원조자라는 미국은 고작 2만달러로 허울값을 치루었고 우방국인 일본은 겨우 10만달러로 경제대국의 체면을 시위했었다.

이남 민중은 이남정권이야말로 반민중적인 정권이며 그 정권의 수괴는 특등매국노임을 폐부로 절감했었다. 그리고 원조자, 해방자, 우방국은 빈 허울뿐 한갖 겉치레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인지했었다. 수재민들은 이젠 다 죽었다고 아우성이였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이남민중들의 가슴은 쓰렸다.

바로 이러한때 이북에서 구호물자를 보내온다는 꿈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쌀 5만석, 직물 50만미터, 시멘트 10만톤, 다량의 의약품을 보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때 온 이남민중, 아니 온 남녘땅이 환호성으로 들끓었고 감격으로 물결쳤다. 이북에서는 광복직후부터 그때까지 28차나 고통을 겪는 이남민중을 구제할 의향을 표시했었지만 당국자들의 방해책동으로해서 단한번도 실현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그때에 와서야 마침내 구호제의가 실현되다보니 이북형제들에 대한 감사의 정과 감격은 더구나 컸었다. 이북이야말로 한 겨레고 오직 믿을 것은 한형제인 이북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1,800만달러라는 국제구제운동사상 최초로 되는 구제물자를 받아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던 수재민들과 감격의 기쁨을 터치던 우리 민중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생사기로에 처해있던 수재민들을 구원해준 이북형제들께 감사한 마음 끝이 없었다. 민중들은 이북에서 보내온 귀하고 뜻이 깊은 쌀을 골고루 나누어 한끼씩이라도 같이 맛을 보았고 어느 집에서는 그 옷감으로 아들딸 혼수감을 했다. 그런가하면 이북형제들의 동포애의 정을 길이 전하기 위해 가보로 건사한 집도 있었다.

이북에서 보내온 수재물자는 수재민들에게 생명수였고 불사약이였다. 먹을 것, 입을 것, 쓰고 살것까지 거기다 고가약들까지 보내오게된 사연을 전해들은 이남민중들은 그때 벌써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진정 우리 7천만겨레 모두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심을 절감했고 미래의 태양이심을 확신했다. 우리 민중은 오늘도 그때의 감격을 추억하며 하루빨리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6.15남북공동선언실현투쟁에 과감히 나서고 있다.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무산 무엇이 문제였는가

화제의 초점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1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금강산에서 갖기로 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무산되어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것을 바라는 7천만 겨레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번에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것은 한반도의 정세를 대결의 원점으로 몰아가고 있는 미국과 그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극우익세력들의 반통일적 작태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말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에 대해 말하지만 진짜 그들의 속셈은 6.15공동선언정신에 따라 남북관계가 여러 측면에서 개선되는 것을 달가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이번에 금강산에서 열리게 되었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무산된 것은 미국의 계획적인 파괴음모책동과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방해책동에 기인된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땅에서는 부쉬의 악의 축 망발과 방한에 즈음해 도처에서 반미투쟁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각계 민중의 반미투쟁은 규모와 구호, 주장에 있어서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것들이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이 부쉬의 방한을 반대해 주한미상공회의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것은 부쉬의 악의 축망발과 반세기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항거의 표시라고 봅니다.

이에 겁을 먹은 미국의 호전계층은 금강산에서 남북의 민간단체들이 모여 공동행사를 치루면 반미의 함성이 요란하게 울려나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을 부추겨 민족공동행사를 무산되게 만든 것입니다.

미국의 사주를 받는 극우익보수세력들은 통일연대 대표들의 참가를 불허하는 방법으로 민족공동행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통일부에 압력을 가해 수많은 사람들의 방북승인을 불허하게 했습니다.

이번에 방북신청이 불허된 사람들은 우익보수세력과 통일부가 말한 것과는 달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방북신청을 아무런 타당성도 없이 불허했으니 이 얼마나 비열한 반통일적 작태입니까.

지금까지 방북신청을 불허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무더기로 방북길을 극악하게 막아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남북간의 통일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무산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에 조종을 받고 있는 극우익보수세력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과 이 땅의 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교류도 관철시킬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 착실히 이행되어 통일의 문을 열기를 바라고 있는 각계 애국민중은 미국과 이 땅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의 반통일적 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도적 논리

그리운 북녘 형제들에게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3일

속담에 청하지 않은 나그네 갈때에만 반갑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집주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면피하게 기어들어 동족에게 온갖 악담을 하고 뻥소니를 친 부쉬와 같은 무례한은 제 소굴로 돌아가서도 우리 민중의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마감으로 광주에 사는 장현진씨의 글 이철씨 소개해드리죠.

지금 한반도에는 더더욱 짙은 냉전의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것은 부쉬방한이 가져다준 위험천만한 결과이다. 부쉬의 이번 행각이야말로 침략전쟁행각이고 반통일행각이라 아니할수 없다.

우리 민중은 이미 부쉬행각의 결과에 대해 불보듯 뻔하게 예측했었다. 그것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규정한 부쉬가 연두교서라는데서 악의 축 발언으로 선전포고와도 같은 대북강경정책을 공공연히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에 분격한 이남 민중들은 부쉬의 망언을 강력히 지탄배격했고 부쉬방한반대투쟁을 전례없이 과감히 벌였다. 때문에 이번 방한시 부쉬는 3중, 4중의 경찰병력에 둘러싸여서도 격노한 우리 민중의 투쟁기세가 두려워 고독한 일정을 보내지 않으면 안됐다. 그런데도 호전광 부쉬는 방한시 악의 축 발언을 연발해 우리 민중의 분격을 더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부쉬는 우리와 동족인 북이 대량살상무기보유국이라고 생떼를 쓰면서 그것을 자기의 악의 축발언의 이유로 이치에도 맞지 않는 궤변을 했다. 이거야말로 적반하장격의 언어도단이 아닐수 없는 것이다.

전세계가 다 인정하는 것처럼 대량살상무기의 최대 생산, 보유, 판매국은 바로 미국이다.

인류의 생존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가장 엄중한 위협은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고 따라서 진짜 악의 제국이야말로 미국인 것이다.

미국은 자기 본토는 물론이고 해외 각국의 미군기지들에도 천문학적 숫자의 대량살상무기를 배치해놓고 있다.

한국에만 보더라도 근 4만이나 되는 미군과 1천여개의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살상무기가 전개돼 있다. 이로인해 이 땅은 그야말로 미국의 핵전초기지로, 전쟁화약고로 화해버렸다. 미국의 이같은 전쟁책동은 한반도에 항시적인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을 조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전쟁책동을 방치해둔다면 이 땅은 핵전쟁의 참화속에서 불모지로 화할 것이고 우리 민족이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이치이다. 바로 이북의 무력은 미국의 핵전쟁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정의롭고 평화적이고 자위적인 무력이다.

이러한 평화적이고 자위적인 무력을 가진 이북에 대해 대량살상무기생산금지요 재래식무기축감이요 하는 따위의 말을 펴는 부쉬의 논리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강도적 논리라 아니할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한국 호전군부당국에 저들의 에프15 차세대전투기구입을 공공연히 강요하면서 이러한 논리를 펴는 것은 그들의 오만성의 극치를 스스로 드러내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다면 부쉬행정부가 북을 악의 축이요 뭐요하면서까지 부당하게 걸고드는 진의의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지탄과 배격을 받고 있는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정당화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자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영구강점하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을 기어이 일으켜보려는데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할 것없이 미국의 이 오만한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과 같은 이 땅의 친미사대매국노들은 미국땅에 찾아가서까지 미국의 이러한 책동을 쌍수들어 찬성하고 있으니 정말 경악을 금할수 없다.

우리 민중은 부쉬방한시 과감한 반미투쟁을 벌인 것처럼 반미투쟁, 주한미군철수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일 것이며 미국의 강도적 논리에 편승해 더러운 대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매국노를 역사의 시궁창에 반드시 처넣고야 말 것이다.

부쉬 서울 행각, 도둑고양이 신세

대담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3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부쉬의 이번 한국행각은 우리 국민의 지탄과 배격속에 진행된 행각이였는데요. 부쉬는 이번 3일동안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해요. 부쉬의 행각은 많은 후문을 남겼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었다가 줄행랑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부쉬는 이번에 세계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대통령이라는 자기의 처지가 어떻고 자기의 몸값이 몇푼어치나 되는가를 똑똑히 알게 됐고 또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 자세와 입장이 얼마나 강한가를 똑똑히 목격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부쉬는 한국행각을 통해서 자기와 미국의 존재가치가 어떤가를 체험했을 겁니다. 우리 민중은 부쉬를 짐승만도 못한 그런 인간쓰레기로 대했습니다. 부쉬는 악의 화신, 전쟁광신자, 세계 최대 테러국의 두목, 부쉬를 민중의 몽둥이로 청산하자, 짐승보다 못한 인간쓰레기, 부쉬는 행각시 목을 내놓아야 한다, 전쟁을 부추기는 부쉬를 박살내자는 등의 격노한 우리 민중의 함성이 도처에서 터지고 부쉬행각을 반대배격하는 각종 플랭카드가 내걸리고 성조기가 불타는 가운데 이 땅에 더러운 발을 들여놓았던 겁니다.

부쉬도 눈과 귀가 있는만큼 우리 민중의 이같은 반부쉬반미기운을 못보거나 못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부쉬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질리지 않을수 없었죠.

사회자 : 우리 민중의 부쉬행각반대투쟁은 전쟁광신자 부쉬에 대한 쌓이고 쌓인 분노의 폭발이였어요. 우리 국민의 반부쉬감정은 부쉬의 입에서 악의 축망언이 터져나오고 부쉬의 한국행각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고조됐는데 어떻습니까.

김현규 : 부쉬의 행각을 앞두고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민중들의 부쉬의 행각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이 격렬했는데요. 전국 603개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대표들은 주한미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과 공개서한전달식을 갖고 부쉬의 한국행각을 규탄했습니다. 이건 반미역사상 전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 서울에서는 290여개의 단체, 부산지역에서는 80여개 단체, 인천지역에서는 36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쉬의 망언과 부쉬의 행각을 반대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을 벌인 것을 비롯해서 전국적 판도에서 반부쉬투쟁이 전개됐습니다.

투쟁형태와 방법에서도 집회와 시위, 성명서, 선언문, 격문, 공개질의서, 호소문 발표, 단식투쟁, 미국관계건물점거 등 다양하게 진행됐는데요. 반미투쟁이 이렇게 전국적 규모로 확산고조되고 조직화측면에서나 격렬성에서 이번처럼 그렇게 높은 수준에 이른 예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의 반부쉬반미투쟁은 부쉬가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더욱 절정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부쉬는 한국행각이 잘못 선택한 것이였다고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김현규 : 우리 국민 모두는 부쉬의 행각을 이 땅에 전쟁의 불씨를 뿌려 민족공멸을 가져올 전쟁행각이고 나라의 통일을 막으려는 반통일행각, 불청객의 행각으로 낙인하고 반부쉬투쟁에 일떠섰습니다.

부쉬가 기어든 지난 2월 19일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부쉬에게 들이대는 공개질의서와 국민 모두가 반부쉬반미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격문을 발표했는데요. 공개질의서와 격문에서는 부쉬가 대세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약 부쉬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7천만 겨레의 항거에 부딪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우리 겨레 모두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층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부쉬방한반대범국민대회가 열렸는데요. 여기서는 부쉬의 광신적인 전쟁책동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부쉬의 행각과 때를 같이해 주한미대사관에 오물세례를 안기고 주한미대사관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강경대응을 했습니다.

각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중들은 부쉬가 도착할 공항주변과 예정된 방한노정 그리고 서울시 곳곳에서 반부쉬투쟁을 격렬하게 벌였습니다.

사회자 : 부쉬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뒤 국민과 맞닿는 걸 제일 두려워했는데요. 부쉬는 우리 국민의 항거에 직면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이 못하고 쩔쩔매다가 줄행랑을 치고 말았죠.

김현규 : 우리 국민의 반미항전에 위협을 느낀 부쉬는 국제공항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성남의 군용기지에로 도둑고양이처럼 기어들었던 겁니다. 숙소에 가는 것도 승용차가 아니라 헬기로 내뺐습니다. 이 한가지 사례만봐도 부쉬가 얼마나 겁에 질려 바빠했는가 하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부쉬가 들어간 숙소는 ******과 ****들에는 부쉬를 따라온 경호원들과 한국 전투경찰병력이 삼중사중으로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쉬의 행각을 계기로 전국이 얼마나 살벌했는가는 우리 모두가 직접 목격했는데요. 전역에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과 국군이 비상태세에 들어갔고 전문직업훈련을 받은 259개 경찰특수부대가 도처에 배치됐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경계속에서 부쉬는 안절부절못했다는 겁니다. 경호에 동원됐던 사람들에 의하면 부쉬는 공포에 질려 밤잠도 제대로 못잤다고 합니다. 부쉬가 얼마나 공포에 질렸던지 주한미군기지들에 찾아가서까지도 사냥꾼에 쫓기는 짐승의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 반미반부쉬투쟁이 얼마나 거셌던지 부쉬는 2박3일동안 줄곧 공포에 질려있다가 이 땅을 빠져나갈때도 도둑고양이 도망치듯 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 기어들었던 부쉬는 범죄자로써의 마땅히 당해야할 벌을 받았다고 봐집니다.

사회자 : **** 장수 성안에서 으르렁댄다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행각시 우리 민중의 항거에 직면해 쪽도 못쓴 부쉬가 이 땅을 빠져나가자마자 또다시 이러쿵저러쿵하면서 떠들고 있는데요. 부쉬의 위협과 전쟁책동에 공포를 느끼거나 그에 놀아날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이 아니죠.

김현규 : 그렇죠. 부쉬는 이번 행각시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 반미자주의식이 어떤가를 직접 목격했을 것입니다. 부쉬는 우리 국민이 예속민의 비애만을 묵묵히 감수하던 50년대, 80년대 국민이 아니며 민족자주의식으로 투철히 정신무장된 새세기 2000년대 국민임을 똑똑히 알아야 할겁니다.

우리 국민, 우리 민족은 부쉬의 광신적인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릴 것이며 만약 부쉬호전계층이 우리 민족을 상대로 전쟁의 불을 지핀다면 우리 7천만 겨레의 단결된 불패의 힘, 반미자주의 불길에 타죽고야 말 것입니다.

부쉬의 한국행각을 통해 우리 각계 민중의 반미자주의식, 반미투쟁의식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민중은 투철한 반미자주의식, 견결한 반미투쟁으로 이 땅에서 가까운 앞날에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안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역적의 가문에서 나온 이회창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일~3일

이번엔 역적의 가문에서 나온 이회창 이런 제목으로 윤정원씨 모시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정계와 사회 각계에서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친미사대매국행위를 거리낌없이 자행하고 있는 이회창에 대한 저주와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가 과연 어떤 가문에서 나왔고 어떤 친미사대매국행위들을 자행했는가 하는데 관해서 얘기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럼 먼저 이회창의 출신가문에 대해서 말씀해주실까요.

윤정원 : 한나라당총재라고 하는 이회창의 출신가문족보를 보면 그의 가문은 애비때부터 시대와 민족을 거스른 철저한 친일주구의 가문이라는 걸 알수가 있어요. 물론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의 친일행위가 세간에 불거져나온건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회창은 그때마다 애비의 행적에 대해 일체언급을 회피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친일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특등 친일사대부인데요. 일찍이 이조 공공가문에서 출생한 그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자 재빨리 일제를 숭상하면서 그의 날개밑으로 깊숙히 기어들었습니다. 일제의 충실한 주구로 악명을 떨친 이홍규는 1969년 경성법학전문학교를 졸업한후 줄곧 일제 검찰계에 투신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반역하는 역적질을 수많이 자행을 했어요. 그가 일제 검찰기관에서 판관견습생으로부터 검사서기로까지 고속승진을 했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 갖고도 그의 황국신민화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걸 잘알수가 있는거죠.

사회자 : 이홍규의 황국신민화는 첫 근무지였던 해주 지방법원 검사국 서기과에 있을때부터 발휘됐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윤정원 : 그는 이미 일제에게 충성을 맹약하는 혈서를 바쳤던 만큼 그곳 주민들에게 갖은 악착한 짓을 다했죠. 그는 자기의 직권을 악용해서 농민들의 **를 강제로 빼앗아가 일본에게 섬겨 보냈는가하면 일제가 정신대 명목으로 우리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어갈때 처녀들뿐만 아니라 출가한 여인들까지 명단에 넣어서 황군의 성노리개로 섬겨바쳤어요. 또 그가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처형하는데서도 한몫 단단히 했다는 건 두말할 여지도 없는거죠.

그래서 일본에 충성한 공로로해서 이홍규는 그후 일제에 더큰 신임을 얻고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으로 올라가서 우리 국민의 독립운동과 계몽활동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혈안이 돼 날뛰었습니다.

사회자 : 이홍규의 경력 가운데 1940년 광주지방법원 검사국에서 활약한 점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시 그가 사상담당검사(현 공안검사)밑에 있었던 사실을 놓고 볼때 더욱 그러하다고 봐요.

윤정원 : 그렇죠. 당시 광주에서는 신민회결성 등으로 조국독립투쟁열기가 대단히 높아지고 있었고 광주는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지역인데다가 곡창지역인 군산, 이리, 전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일제 지주들의 횡포와 전횡에 시달리던 소작인들의 울분이 극도에 달하고 있었어요. 곳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옛 서당을 이용한 야학이 활발하게 전개됐습니다.

당황망도한 일제총독부는 여기에 탄압의 촉수를 더 강화했는데 그래서 광주외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상담당을 따로 두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종교인, 야학당 관련자들을 무참히 고문학살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홍규가 가장 악질적인 사상담당검사의 밑에서 활약한 것을 봐서 그의 손에 얼마나 많은 애국민중의 피가 묻었겠는가 하는 건 짐작하기 어렵지않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해 싸우다가 이홍규와 같은 악질적인 친일주구들에 의해 무참하게 희생된 반일독립투사들이 한을 풀지 못한채 잠들고 있고 그들 유족들의 울분 또한 하늘을 찌를듯 높아지고 있거든요. 헌데 문제는 여기에만 있는게 아니라 이회창자신이 바로 이런 친일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 역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났다는 건데요. 그럼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역적의 가문에서 역적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만 이회창의 집안이야말로 대표적인 사례라 할수 있죠. 언젠가 이회창은 자기의 애비에 대해 회고를 하면서 나의 아버지는 일본을 여간 숭상하지 않았다. 내가 어릴적부터 지금의 나이에 이르도록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버지다. 라고 말했는데 과시 그의 애비에 그 아들이라 하겠습니다.

애비로부터 친일사대교육을 받으며 자란 이회창은 소학교시절부터 우리 말과 글은 잘 몰라도 일본말을 아주 유창하게 발음해서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놀라게 했고 신발이나 옷 등 물건들도 일본제만 쓰면서 마치 일본인처럼 놀아대서 아이들의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회창이 애비와 함께 기모노를 입고 천황폐하만세를 열창하며 사진까지 찍은 것은 2대에 걸친 친일역적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매국노의 작태라하겠죠.

사회자 : 해괴한 옷에 해괴한 꼴을 한 이회창부자의 추악한 모습이 안겨와서 더욱 역겨운 생각이 듭니다. 헌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매국노들은 상전을 바꾸는데서도 처세술이 능한 협잡배라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친일역적 이홍규가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이 땅에 미군이 들어오자 재빨리 친일주구로부터 친미주구로 변신을 했죠. 애비의 영향을 받은 이회창도 미국을 등에 업고 출세의 길을 톺아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가 박정희군사독재정권하에서 최대 언론말살사건이였던 민족일보사건에 직접 가담해서 진보적 언론인이였던 조용수사장을 사형에 처하고 민족일보사를 창립 3개월만에 폐간시키는데 특출한 공을 세운 것도 결국은 미국의 환심을 사보려는데 있었던 겁니다. 그후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대와 하버드대를 수료하면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광신자가 됐고 미국의 보호와 비호밑에 정계에 진출해서 권좌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게 됐습니다.

사회자 : 이같은 야망으로부터 이회창은 자기 애비가 일본을 숭상한 것처럼 미국을 상전으로 섬기면서 신주모시듯 했는데요. 그의 친미사대주의적 본성은 부쉬행정부에 이르러서 더욱 표면화, 노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회창의 친미사대매국적 정체는 부쉬정권이 들고나온 대북강경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하면서 그것이 한나라당의 정책과 꼭같다고 한데서 이미 드러났고 북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상호주의, 투명성과 검증론을 앵무새처럼 외워댄데서 다시금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지독한 친미사대매국역적인가 하는 건 최근 미국행각시 호전적인 부쉬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추어올리면서 남북관계개선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망발들을 늘어놓은 것을 통해서 더 똑똑히 알수가 있는거죠.

그는 마치 대통령이나 될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미국상전들을 찾아다니며 북은 변한 것이 없다, 북의 핵개발대비다 뭐다 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망발을 했는가하면 자기가 집권하면 북의 병력을 후퇴배치시키고 상용무기감축과 대량살상무기개발중단을 요구하겠다면서 시대착오적인 궤변을 거리낌없이 늘어놓았습니다.

이번에 부쉬가 북을 악의 축이라고 걸고든 망발을 내뱉은 것은 이회창의 미국행각시 입김을 받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 할겁니다. 이것은 이회창이야말로 자기의 더러운 대권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미국상전에게 빌붙어 동족을 물어뜯고 **를 드러놓는 그 어떤 민족반역행위도 서슴없이 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매국역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가 권좌를 차지하게 되면 우리 민중은 핵전쟁의 재난에서 놓여날수가 없다고 봐요.

사회자 : 그렇습니다. 대권욕에 환장한 이회창이 지금 미국상전을 등에 업고 북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마구 덤비지만 그건 오뉴월의 개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자기의 파멸의 길만 앞당길 뿐이고 우리 국민도 그런 반역아를 결코 용납하지 않죠.

각계 민중은 매국역적의 가문에서 나와 매국역적질을 체질화하고 있는 이회창을 역사의 시궁창에 끌어올려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3일

리회창의 매국배족 망발 규탄

조평통서기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한나라당≫ 총재 리회창이 미국의 강경정책에 발 맞추어 련이어 우리를 걸고 드는 망발을 줴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일 보도 제815호를 발표하였다.

리회창은 지난 2월 21일 ≪한미가 상호리해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구체적인 대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느니,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에 맞장구를 치는 망동을 부리였다.

그는 지어 ≪북의 과도한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이 조선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망발까지 줴쳤다.

보도는 리회창이 미국상전의 망발을 그대로 되받아 외우면서 동족을 자극하고 대결을 선동해 나선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는 또 하나의 반민족적죄악이라고 지적하였다.

보도는 그가 그처럼 악질적으로 날치는것은 그 누구의 ≪위협≫보다도 미국을 등에 업고 권력의 자리를 타고 앉아 보려는데 그 추악한 속심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과 념원에 역행하여 6.15북남공동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미국 호전광들의 특등앞잡이가 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엄중히 위협하는 극악한 민족반역자 리회창을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의 파멸이냐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느냐 하는 이 준엄한 시각에 미국의 전쟁책동에 맞장구를 치는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큰 반역은 없다.

리회창과 같은 매국노, 호전광의 망동을 그대로 방임해 둔다면 우리 겨레는 그 재난을 면할수 없다.

남조선의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민족반역자 리회창을 정계에서 제거해 버리고 민족내에서 완전히 매장해 버려야 할것이다.

리회창은 동족을 배반하고 외세와 작당하는것이 자신의 파멸을 초래하는 길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부쉬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국제적반향

미국대통령 부쉬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규탄단죄하는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더 높아 가고 있다.

조선통일지지 아시아지역위원회와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 인디아위원회는 2월 25일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부쉬가 아시아나라와 지역을 행각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침해하고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면서 힘으로 압살해 보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드러내 놓은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부쉬의 망발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부쉬는 자기의 망발에 대하여 응당 조선인민앞에 성근히 사죄하여야 하며 조선의 자주통일을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군과 대량살륙무기들을 당장 철수하여야 한다.

아시아지역주체사상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에 대한 부쉬의 망발은 그 체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조선인민의 민족적감정에 대한 모독이며 전 세계 평화애호인민들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방글라데슈로동당, 방글라데슈로동자, 농민사회주의당,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를 비롯한 8개의 정당과 단체는 같은 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는 정신병에 걸린 미국대통령의 오만한 발언이 세계인민들을 롱락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조선의 편에 서있다.

강권과 일방주의는 고립과 파멸의 길

로동신문

3일부 ≪로동신문≫은 미국이 쓰라린 력사적교훈을 무시하고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에 계속 매달린다면 차례질것은 고립과 파멸뿐이라고 강조하였다.

글의 필자는 세계지배를 위한 미국의 강권과 전횡, 힘의 정책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짓밟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 일방주의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거에 부딪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미국의 손탁에서 벗어 나려는 동맹국들의 움직임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로씨야와 중국도 미국의 강권과 일방주의를 반대하며 세계의 다극화추세에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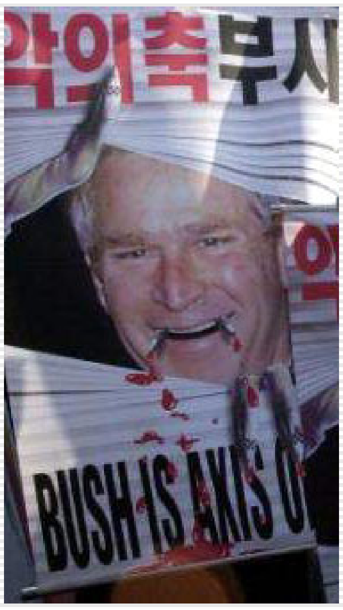
세계도처에서 울려 나오는 반미함성은 세계가 다극화의 길, 자주의 길로 나가고 있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세계의 다극화는 자주화의 표현이다.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의 지향이며 시대의 요구이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국제사회의 미움을 받지 않게 행동해야 할것이다.

지난해 5월 유엔인권기구에서 미국이 축출된것은 강권과 전횡, 독판치기를 일 삼는 ≪유일초대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징벌이였다.

이것은 자주를 위한 세계의 정의의 주먹앞에서는 미국의 강권이 무력하다는것을 보여 준 시대의 경종으로 된다.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 상영모임 도꾜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대기념비적걸작으로 완성된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에 대한 상영모임이 1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영화에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당과 군대, 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신 수십년간의 빛나는 로정과 불멸의 혁명업적이 종합수록되여 있다.

영화는 일찌기 룡남산에 오르시여 조선을 빛내이실 엄숙한 맹세를 다지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수십성상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길에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은 사상리론의 천재, 령도의 거장이시며 인덕의 최고화신이라는데 대하여 력사적인 화폭들로 감명 깊게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영화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현명하게 이끌어 주신데 대한 력사적자료들과 강성대국건설의 령도업적, 력사적인 평양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을 마련하신데 대해서와 세계정치사에 특기할 로씨아련방방문 등 조국통일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감동 깊게 보여 주고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주체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것으로 하여 탁월한 정치가, 희세의 위인, 21세기의 태양으로 만민으 칭송을 받고 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영화는 힘 있게 강조하고 있다.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는 앞으로 총련의 각급 기관들에서 상영하게 된다.

사회주의수호정신 맥박치는 불멸의 로작

≪로동신문≫ 3일부는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로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를 발표하신 때로부터 9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론설을 실었다.

론설은 다음과 같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가 ≪전체주의≫, ≪병영식≫, ≪행정명령식≫이라는 사회주의배신자들의 비난이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의 산물이며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붕괴된것도 제국주의자들과 반혁명세력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라는데 대하여 신랄하게 발가 놓으시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전략에 편승하여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헐뜯는 혁명의 배신자들을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단호히 락인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재적예지로 원쑤들의 교활한 반혁명적정체를 가려 보지 못하고 사회주의악선전에 속아 넘어간 여러 나라 인민들의 사상적혼란의 원인과 여러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의 근본원인을 사상론의 견지에서 심오하게 밝혀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로작에서 사회주의를 신념화, 도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적문제들도 뚜렷이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로작에서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밝혀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에서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로동계급의 당과 정권의 본질과 우월성을 새롭게 밝혀 주시고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줄데 대하여 강조하신것은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의 과시로 된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금강산행사의 파괴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 - 주체91(2002)년 3월 3일

이번에 금강산에서 개최하기로 되였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북남공동모임≫이 파탄된 사태는 온 겨레에게 새로운 민족적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금강산행사는 새 세기 두번째 해의 첫 통일행사로서 북과 남의 민간단체들의 6.15공동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민족단합의 회합, 평화와 통일의 대회로 훌륭히 준비되였다.

그러나 이 력사적인 통일행사가 막을 올리지 못하고 파탄된 사태는 온 민족에게 누가 평화와 통일을 원하고 누가 대결과 전쟁, 분렬을 추구하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다.

우리는 올해 년초에 평양에서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를 가지고 3대호소, 3대제의를 내놓은데 기초하여 남조선의 여러 통일운동단체들은 물론 각계인사들과 폭 넓게 손잡고 이번 금강산행사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대축전으로 장식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우리의 뜨거운 동포애와 넓은 포옹력에 의하여 금강산현지에는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을 통일사절로 맞이하고 환대할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 져 있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우리와 정 반대의 사태들이 연출되였다.

남조선민간단체들의 통일행사에 간섭하여 불청객인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고 그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야당들의 시비질이 계속되였으며 결국은 당국의 부당한 ≪방북불허≫조치라는 차단봉이 내려져 금강산으로 오려던 남조선통일운동단체대표들의 발걸음이 모두 묶이여 버리는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였다.

민족단합대회의 앞길을 가로 막은 미국과 남조선반통일세력의 이 행위는 의심할바 없이 우리 민족내부의 대결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비렬한 파쑈행위였다.

그것은 또한 전쟁과 분렬을 꾀하는 침략행위이며 민족반역행위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이와 같이 반평화, 반통일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번 금강산행사의 파괴자로서 락인되게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저주와 규탄을 면할수 없게 되였다.

오늘 정세는 변하였으며 시대는 달라졌다. 오늘은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주인행세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통일념원을 총칼로 억누를수 있었던 어제가 아니며 남조선인민들도 미국의 식민지지배에 순종하며 민족적존엄을 유린당하는데 버릇되였던 어제날의 인민이 아니다.

이번 부쉬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남조선의 각당, 각파,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중적인 반미투쟁은 남조선인민들이 더는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원치 않고 있으며 자주적으로 살것을 바라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 주었다.

우리는 이번 금강산행사를 파탄시킨 미국의 행위가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의 그 어떤 좌절을 가져 온것이 아니라 도리여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반미투쟁의 도화선에 대중적인 불을 지피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인정한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반부쉬, 반미기운이 높아 지는것이 두렵고 겁난다면 남조선통일운동단체들의 민족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가로 막으려 할것이 아니라 자기의 침략군대와 살륙무기를 걷어 가지고 남조선에서 물러가는것이 좋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번 금강산행사를 파탄시키려는 미국에 추종함으로써 6.15공동선언에서 민족앞에 한 자기의 확약을 스스로 저버리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과 극우반통일세력들이 민족의 통일념원을 거세하며 말살하는 행위를 걷어 치우고 민족앞에서 6.15공동선언을 리행하려는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 끔찍한 악몽≫

≪정형근 국정원장, 조갑제 통일부 장관, 김용갑 국방부 장관.... 이회창 대통령은 내각을 이렇게 짤 것이다.≫

이런 농담이 인터넷에 떠돈 적이 있다. 설마 그렇게까지 하랴, 웃어넘겼는데 이제 보니 그럴 일이 아닌 듯하다.

2월 27일 김용갑 의원이 ≪보수출정식≫이라는 멋진 이름 아래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후원회 풍경을 보면 분명 그렇다. 이 모임에는 한나라당과 자민련 국회의원 54명을 포함해 8백명의 보수인사들이 참석했다.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일 먼저 축사를 한 이회창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외로울 때나 힘들 때도 소신을 굽힐 줄 모르고 줄기차게 자기 확신을 전파하는 김 의원의 용기에 감복했다. 이 분이 가진 장점과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실한 신뢰다.≫

그런데 이 총재에게 ≪감동을 안겨준≫ 김용갑 의원이 뭐라고 했을까.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은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바뀌었다. 대북관, 안보관이 위험수위까지 왔다. 이 좌파 정권이 한 번 더 연장하는 그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총재는 또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당은 따뜻한 보수고, 대한민국 지킴이다. 평소 존경하는 이철승씨도 오셨지만 일정 때문에 먼저 나가겠다.≫

그럼 이철승씨는 뭐라 했을까.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악의 씨≫라고 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현 정권의 햇볕정책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다. 부시가 우리나라를 왔다 간 뒤에도 반미 친북 부패정권이 활개를 치고 있다. 좌익은 흉악한 악이고, 사대주의자들이고, 민주주의도 없는 반동이다.≫

이런 사람들을 ≪평소 존경하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감동을 받는≫ 이회창 총재가 자리를 뜬 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본격적으로 막가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사례만 추려보자.

≪이 정권 들어와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간첩 잡는 기술자를 전부 쫓아냈다.≫(국회 부의장 김종하 의원)

≪지금 좌경 세력이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지 모른다. 이 세균이 어디까지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팔자 좋게 늘어져 있다. ***의 꾀가 쥐 대가리다. 지난번 평양축전에 국가보안법 수배자를 보내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번에도 한 3백 명 가 있다. 이번에도 정신병 환자 많이 가 있을 것이다.≫(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장 박명환 의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대해 굳이 이성적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진 않겠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은 좌익 정권이고, 좌익은 흉악한 악이며 민주주의가 없는 반동≫이라는 주장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나는 김대중 정부에 권한다. 이 분들께 자기의 주장이 진실임을 확신할 기회를 주기 위해 즉각 다음 몇 가지 조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첫째. 김용갑 의원 후원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낸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체포한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법적 절차는 신경 쓸 필요 없다.

둘째. 이 후원회가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내외 우익세력의 배후조종에 따라 열렸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 구금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사에 필요할 경우 다양한 종류의 고문을 가한다. 죽으면 변사체로 만들어 내다버린다. 변호인과의 접촉도 철저하게 차단한다.

셋째. 신문방송에는 보도지침을 내려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보도를 봉쇄하며 최종수사결과 발표만을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한다. 말을 듣지 않는 언론인은 잡아다 반쯤 죽여 놓는다.

넷째. 재판은 비공개로 열고 판사들로 하여금 전원 유죄를 선고하게 한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나는 자칭 보수의 주장에 전폭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보다 훨씬 확률이 높은 것은 이날 ≪보수출정식≫에 모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다.

그들은 권력을 장악했던 지난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 네 가지를 가차 없이 집행했다. 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과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정권 탈환, 정말 끔찍한 악몽이다.

유시민 시사평론가
2002/03/04 프레시안

≪고발≫ 새해맞이 행사에 한나라당 반통일적 논평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 책동에 의해 새해맞이 민족공동행사가 무산된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자신의 반통일성을 또한번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 한나라당의 논평을 아래에 싣는다.

≪한나라당 논평≫ 결국 ≪새해맞이≫ 허용했나?

결국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서 열리는 소위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 남측 참여자들이 오늘 입북한다.

정부는 전례없이 사전에 엄격하게 부적격자를 가려내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모양이다.

그 결과의 책임은 정부의 몫이다.

만약 작년 8월 평양축전파동 같은 일이 다시 재현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은 물론이고 또다시 극심한 남남갈등까지 초래될 것이다.

과연 만남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는 식의 이 같은 형식적 전시성 행사를 위험을 무릅쓰고 허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번 행사는 **김일성** 생일을 축하한다는 소위 ≪아리랑축전≫에 남측인사들을 대거 불러들이기 위한 전초행사로 기획된 측면이 강하다.

북한의 주문엔 잘 따르면서 왜 이산가족상봉재개 같은 근본적인 인도적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요구도 못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보다 당당하고 줏대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02. 2. 26

한나라당 대변인 남경필

인천시장선거, 시민후보찍겠다

인천시민 여론조사, 전체 응답자 중 30.9% 지지

인천시민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의 개혁적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당선운동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35.9%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의 후보 지지 운동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 시민의 힘≫이 여론조사기관인 (주)한길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벌인 설문조사에서 인천 시민들은 시민단체의 개혁 후보 지지 및 당선 운동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20.6%)≫, ≪다소 찬성(50%)≫ 한다고 대답했다.

반면 ≪다소 반대≫는 14.6%, ≪매우 반대≫는 8.1% 이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6.7%)≫고 응답했다. 또 이번 지방선거에 시민단체가 지지하는 후보가 출마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시민단체 지지 상관없이 후보 결정≫이 58.6%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시민단체 지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대답도 35.9%를 차지했다.

특히 인천시장 선거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0.9%로, 한나라당 후보 지지(29.5%), 민주당 후보 지지(18.6%), 자민련 후보 지지(3%) 등 기성정당 지지율 보다 높아 이 운동의 파괴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투표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인물(34.2%) 또는 정책/공약(32.1%)을 주로 꼽았고, 시민단체의 지지여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대답도 22.4%에 달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을 보고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8.2%에 불과했다. 아울러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 52.2%, ≪가급적 투표≫ 20.9%, ≪그때 가봐야 알겠다≫ 24.8% 순으로 나타났다.

2002/02/04 인천연수신문

부시 기관지와 미국 공화당 2중대

부시 방한이 남긴 최대의 성과는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 자각이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동경과 환상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미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다. 미국의 실체와 이중성에 대해 국민들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기고만장한 부시의 막가파식 돌출발언을 막고 전쟁위기감을 누그러뜨린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공조를 외쳐대는 맹목적

인 친미사대주의자들 덕이 아니다.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자각과 여론 때문이다.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해방 후 최고도에 달했다. 이에 당황한 부시는 발언 수위를 누그러뜨릴 수밖에 없었다.

반면 국내의 일부 언론과 야당, 심지어 전문가를 자처하는 《비전문가》들은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장단을 맞추면서 부화뇌동하기에 바빴다. 전세계의 비난 여론과 심지어 미국내에서조차 일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이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부시의 발언을 거들고 나선 이 나라 냉전수구세력들의 엽기적인 행동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한미동맹과 한미공조에 문제가 생겼다고 난리다. 또 햇볕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미국의 부당한 주장과 정책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따라가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부시의 《기관지》를 뺨치는 일부 수구언론들의 보도태도와 《미국 공화당 2중대》식의 한나라당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들의 사대주의적 태도와 악의적 왜곡에 연민의 정마저 느끼게 한다.

일단 한반도를 휘감았던 전쟁위기감을 해소하는데는 성공했다. 그나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라면 성과다. 그러나 여전히 북미관계의 앞날은 불투명하고 언제라도 다시 전운이 감돌 수 있다. 부시의 햇볕정책에 대한 원론적이고 의례적인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의 앞날은 험난해 보인다.

부시는 방한하여 북한에 대해 대화를 촉구하는 제스처를 썼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다.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기조는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을 억제하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견제하는 것이다. 설사 북미대화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대화채널만 열어놓은 채 협상을 진전시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시의 입장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은 시급한 과제가 아니며, 결코 서두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오히려 《변화하지 않은 북한》, 《깡패국가 북한》, 《테러지원국 북한》,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북한》이 MD계획과 같은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에 명분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작년 6월 6일 부시의 대북 대화재개 선언은 미국의 이 같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미국이 제시한 대화 의제는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하지만, 미국이 제시한 의제 속에는 사실상 많은 전제와 조건이 함축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썩은 당근》을 내밀고 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꼴이다.

또 94년 《제네바합의문》과 99년 《베를린합의》, 2000년 10월 《북미공동성명》과 같은 기존의 북미간 협상결과와 합의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북미관계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과거 핵에 대한 조기 사찰 요구는 경수로 핵심부품이 인도되기 직전에 받도록 합의한 《제네바합의문》의 약속을 벗어난 것이다.

최대 현안인 미사일문제도 미국은 실제로는 북한과 협상할 생각이 없다. 미사일문제는 2000년 10월 조명록의 방미에 의한 북미회담을 통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부시가 등장하면서 미사일협상은 난관에 봉착했다. 일체의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미사일협상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을 새로운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미국은 MD계획의 명분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없다. 북한은 이른바 《불량국가》 가운데서도 가장 미사일 기술이 앞선 국가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재래식 군축도 어려운 문제다. 재래식 군축과 전전배치 군사력의 후방 이동은 북한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까닭이다.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장해제하고 항복하라는 소리와 똑같다. 북한이 군사력을 전진배치 시키고 있는 것은 한미연합군의 공세적 전략에 대한 대응적인 측면이 크다. 제공권과 후방지원능력이 절대 열세인 북한으로서는 군사력을 가능한 한 전진배치해 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 미군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군을 한미연합군과 밀착시켜 배치해야 한다.

생물무기에 대한 사찰 요구 역시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국제적으로 사찰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사찰을 받으라는 것인지 황당하다. 생물무기에 관한 한 미국은 할말이 없다. 생물무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게다가 기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강화해 생물무기의 완전한 폐기와 강제사찰을 규정한 《강화의정서》를 만들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미국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은 이미 1987년 BWC에 가입했다.

잘나가던 남북관계가 삐꺽거리기 시작한 것은 부시 등장 이후이다.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남북간의 화해, 그리고 한반도문제의 남북한 주도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 남북간에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고 한반도에서 《적당한 긴장》이 조성되는 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시는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표면적인 지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햇볕정책에 제동을 거는 전략으로 나오고 있다. 김대중 정부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미국의 입맛에 맞는 친미사대적이고 냉전수구적인 성격의 차기정권 등장을 기다리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있다.

부시는 한국내에서 일고 있는 반미감정과 미국에 대한 비판적 기류를 억누르면서, 미국의 MD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한미군의 장래와 미국의 무기판매를 확실히 보장해 줄 친미정권이 절실한 형편이다. 따라서 올 대선에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친미사대정권의 집권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들에게 유리한 국면과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장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제는 《북풍(北風)》이 아니라 《미풍(美風)》을 우려해야 할 판이다.

대선에서 친미사대주의 정권이 집권하게 된다면, 내년 민족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다. 부시의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동조하여 그나마 견제력을 상실하게 되어,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를 맞고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도태무기 전시장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이 쥐고 있던 한반도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남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남북이 중심이 되어 자주적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또 상당한 수준까지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
2002/03/04 통일뉴스

3 · 1절, 수원에 울려퍼진 《안티조선》

사회단체들, 3 · 1절 기념식과 반민족언론 규탄 대회 가져

경기 · 수원지역 사회단체들이 3 · 1절을 맞아 본격적인 반민족언론 규탄에 나섰다.

1일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하 경기민언련)을 비롯해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수원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수원역 앞에서 《3 · 1절 기념식 및 반민족언론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김진춘 목사(매원감리교회, 경기민언련 고문)는 대회사를 통해 《해방된 지 반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일제 잔재가 민족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오늘 날까지도 득세하고 있는 친일파들은 물론 반민족언론을 규탄하여 민족이 살아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대회사 끝나자 수원역 앞에는 《삼일절 노래》가 울려퍼졌다. 《기미년 삼월일일 정오/ 터지자 밀물 같은 대한 독립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중략)…동포야 이 날을 길이 빛내자》

이어 일제 침략시기인 1945년 7월 20일에 부민관 투탄의거를 거행했던 독립운동가 조문기 선생의 《독립선언서》 낭독이 이어졌다.

기념식 후 치뤄진 《반민족언론규탄대회》에서 경기민언련의 장문하 상임대표는 《83년전 수원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반세운동이 일어나 독립의지를 과시했던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민족언론의 죄행을 고발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장문하 상임대표는 《어제 민족정기의원모임에 속한 애국적인 국회의원들이 밝혔듯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사장은 물론 신문 자체가 앞장서 친일행위를 해놓고도, 반성과 사죄없이 오히려 민족지로 둔갑시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진 규탄사에서 수원KYC의 박우석 고문은 《엄청난 액수의 탈세를 자행하고도 언론탄압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라며 《그런 신문이 민족지 행세를 하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함께 반민족 언론 반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는 조선일보 허위왜곡보도 사례전시회와 함께 《조선일보를 《민족신문》이라고 표기한 국사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는 서명운동이 진행되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 김아무개 씨는 《어제 친일파 명단을 공개한 의원들 중에 수원 출신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어 답답했다》며 《수원에서 이런 뜻깊은 집회가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아무개 씨는 또한 《홍난파를 비롯해 수원지역 출신으로 판명된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에도 시민단체들이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2002/03/04 오마이뉴스

2단계 대테러전쟁 두고 미국내 논란

미 부시정부의 2단계 대테러전쟁이 사실상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미국내에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미국은 알 카에다 기지로 생각되는 아프가니스탄 동부 팍티아주에 대규모 폭격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천명 이상의 아프간군 병력이 알 카에다와의 지상교전에 대비해 현지에 도착했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아프카니스탄에 평화유지활동 및 테러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5000여 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라덴의 아버지와 그 측근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예멘에도 곧 병력을 투입해 알카에다 소속 인물을 색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미국은 또 필리핀에도 반테러작전을 위해 병력을 투입해 둔 상태이고 인도네시아에도 같은 이유로 병력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미군 최고수뇌부가 지난 주말 이틀에 걸쳐 국방 최고수뇌부 회의를 열어 테러전 확전 등 세계전략차원의 전쟁전략 수립 및 수행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포함, 토미 프랭크스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조지프 랄스턴 유럽군사령관, 데니스 블레어 태평양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는 아프간전 종전대책, 필리핀 테러세력 분쇄, 예멘과 그루지야 등 테러리스트 색출을 위한 병력 파견, 테러전 확전 대책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미군의 향후 군사대응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9.11 테러참사와 미국의 테러전 이후 예상되고 있는 제2의 본토공격에 대비해 미국과 캐나다를 함께 묶는 북미통합방위체제 구축을 검토, 미군 4성장군 지휘아래 주방위군과 해안경비, 해군함정과 공군 전투기 등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지휘체계 발족을 추진중이다.

톰 대슐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시정부의 대테러전쟁 확대 방침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행정부가 대테러전쟁 확대 목적을 의회에 설명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고 뉴욕타임즈가 1일 보도했다.

민주당 로버트 비야드 의원도 국방성이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는 대테러전쟁 목표에 대한 설명없이 의회로부터 공수표를 얻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공화당측은 국론 분열이라고 맞서고 있다. 부시정부는 아프간전쟁 승리와 국내의 반테러 지지 여론을 활용해, 미국이 지목하는 테러집단 및 세력 소탕작전을 계속할 태세이다.

부시정부의 2단계 대테러전쟁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내 민주당과 일부 비판적 민간연구집단, 그리고 유럽 및 러시아의 비판적 태도 등이 아프간 전쟁때와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

서보혁 기자
2002/03/04 통일뉴스

F-15 선정땐 부품 안정적 조달 어렵다

미국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F-15 전투기가 2030년께 폐기될 예정이어서 한국 공군이 미국의 F-15K를 도입할 경우 2030년 이후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공군 차기전투기(F-X) 시험평가단이 평가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공군 차기전투기 시험평가단은 해외 현지 심사 뒤 작성한 ≪차기전투기 시험평가 결과보고서≫의 장기 군수지원 보장 분야에서 ≪F-15K는 미국 공군의 F-15(시리즈) 항공기 운영계획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애로를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군 시험평가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운영 중인 F-15A와 B 122대는 2007~2010년에 폐기될 예정이고, F-15C와 D 403대는 2014년까지 179대로 감축운영 예정이며, F-15E는 최장 2030년까지 운영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차기전투기를 2005~2008년 40대를 도입해 2040년까지 운용할 예정이어서, 총구입비용이 5조8천억원대로 알려진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선정할 경우 2030년 이후 적어도 10년 동안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군 시험평가단은 특히 F-15K에 적용된 미국 정부 보증판매에 대해서도 ≪미 공군과 동일기종일 경우 운영기간중에는 지원 효율성이 높은 편이지만 미 공군의 폐기기종일 경우 수리 부속품목이 생산중단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장기 군수지원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강창성 의원(한나라당)은 ≪수치화한 1단계 평가에 따른 기종 결정을 포기하고 2단계 평가에서 정책적 고려라는 이름으로 미국 F-15K로 낙찰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은 ≪F-15K 선정 여부가 우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잣대가 돼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지정학적 여건과 항공기술 이전 등을 고려해 다른 기종을 선정하더라도 우방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기종 선정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일이 없으며, 국방부가 평가기관에 압력을 넣을 여지도 없다≫며 ≪3월 중 평가를 완료해 4월 중 기종을 결정하고 4~5월 사업 집행승인을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성걸 박용현 기자
2002/02/04 인터넷 한겨레

노동자들이 집을 나온 이유

2002년 2월 25일, 파업이 시작되었다.

기차를 움직이는 노동자들, 전기를 만드는 노동자들, 가스를 공급하는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일어섰다. 예전 같으면 ≪교통대란≫, ≪전력대란≫, ≪가스대란≫ 따위의 무시무시한 언어 공세만 나왔을텐데, 텔레비전에서는 이한동 총리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집으로 복귀하라≫고 다소 ≪자상한≫ 당부까지 했다.

그러나 바로 그 행복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들은 파업에 돌입했다. 수천, 수만의 노동자들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의 공통된 요구를 요약하면 첫째가 민영화 반대, 둘째가 해고노동자 복직, 셋째가 근로조건 개선이다. 이런 절박한 요구가 이들을 파업에 돌입하게 만들었다. 이런 요구들이 노동자들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선 민영화 반대의 주장부터 들여다 보자. 얼핏 ≪민영화≫라는 단어는 ≪관영화≫라는 말에 비해 ≪민주적≫인 느낌으로 다가온다. 어떤 면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비전문가인 관료들에게 운영을 맡기는 것보다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민간에게 운영을 넘기는 것이 옳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초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가스, 전기, 철도 등은 농업, 주거, 교육, 의료 등과 마찬가지로 시장의 이윤 원리에 맡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이다.

또 지금 계획 중인 민영화는 불행하게도 국내외의 민간 독점 자본에게 그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라 ≪사유화≫라 불러야 정확하다. 진정한 대안은 소유권은 공공 영역에 남기되 운영은 전문가와 노동자들이 공동 경영하는 것이다. 그래야 효율성과 공공성, 인간성이라는 세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 문제는 단순히 일자리로 돌아가겠다거나 소득원을 되찾겠다는 것을 뜻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마치 독재 정권 아래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이 늦게나마 그 공로를 인정받듯, 인간답게 살기 위해 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운동하던 사람들이 그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적인 잘잘못을 따지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해고노동자들은 ≪해고≫라는 청천벽력같은 회사의 결정 앞에서 좌절감과 배신감을 느끼고 동시에 적개심과 원한, 적대감을 가슴속에 쌓는다.

믿어 왔던 회사에게 배신당했다는 느낌, 옆 동료의 해고를 보면서 행여 칼날이 자기에게도 떨어질까봐 위축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노동자들의 창의성과 자발성, 만족감과 행복감을 억압한다. 이를 해결할 유일한 대안은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다.

근로조건 개선의 문제는 생활 수준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이기도 하다. 2만 명이 일하는 철도 분야에서 한 해에 30명이나 죽는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하루종일, 그리고 다시 밤을 새워 일하고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하는 식으로 일하는 철도노동자가 과연 집에 와서 창조적인 일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철도노조 가족대책위원회의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휴일날 잠만 자는 남편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다른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해보니 다 똑같은 처지였다.≫

그의 결론은 이렇다. ≪결국 내 남편과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같이 싸우는 것밖에 없다.≫ 더불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말이다. 이것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진정으로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길이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
2002/02/04 인터넷 한겨레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8)

대표집필자 최성원 / 2001년 11월 6일

순　서

1. 두 개의 전선 이외에 다른 전선은 없다
2. 그렇다면 지역통일전선은 무엇인가?
3. 전략적 통일전선을 구축하는 투쟁에서 전술적 공동전선이 가지는 의의
4. 민족민주운동의 미숙성과 그로 인한 전술적 패배
5. 전술적 실패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6. 민족해방혁명의 승리국면에 대하여
7. 민족해방혁명과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
▶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8.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하는 전략문제에 대하여

김철수 동지는 ≪두 개의 전선론≫이 ≪북의 혁명무력과 남의 보조적인 대중투쟁력이 결합하면 남에서 변혁이 가능한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전선론≫은 그러한 전제를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북측의 혁명무력과 남측의 대중투쟁력이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조직적 실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혁명무력과 근로대중의 반제역량은 민족해방혁명의 동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일치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일치성이 곧 조직적 실체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측의 혁명무력을 영도하는 혁명적 당과 근로대중의 반제투쟁을 영도하는 민족민주전선의 지도핵심역량은 조직적 실체로 결합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혁명영도체계로 결합해야 남측에서 지역혁명을 완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다른 경우에는 조직적 실체로 결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김철수 동지가 사용한 ≪결합≫이라는 개념을 조직적 실체로 결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투쟁전선에서 합세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그러한 해석은 타당합니다.

김철수 동지는 ≪한국민중의 자체 혁명역량이 발전하지 않고 대중정치투쟁이 고양되는 정도의 수준에서 어떤 다른 힘의 뒷받침에 의해 자주적 민주정부의 건설과 보위가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마치 우리들의 견해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역량이 혁명역량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대중적 정치투쟁이 고양되는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도, 북측의 혁명역량의 지원에 의해 자

➡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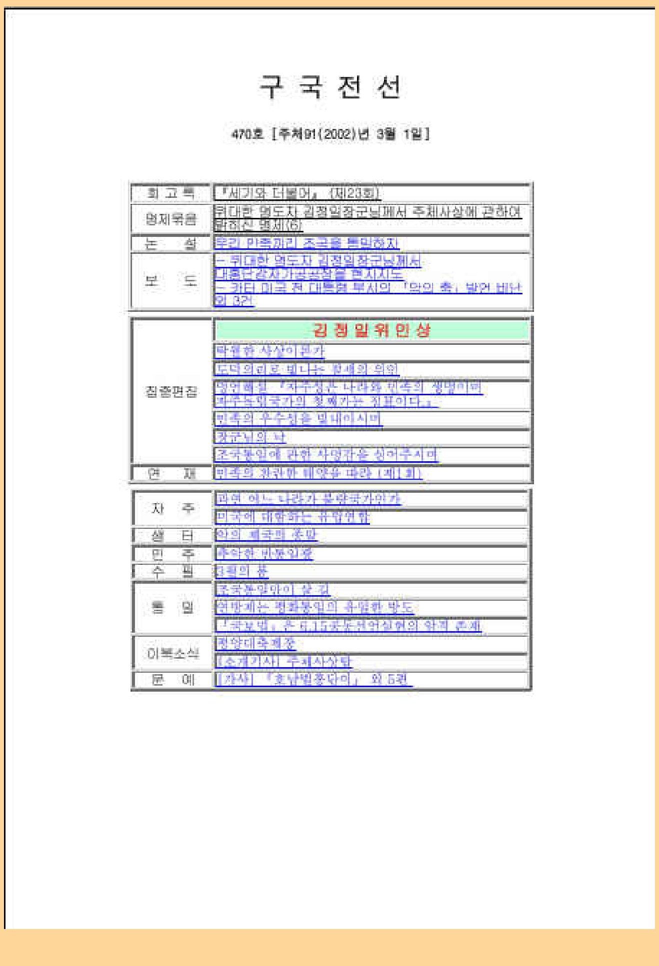
주체91, 3월 1일

구국전선 제470호

회 고 록 ≪세기와 더불어≫ (제23회)
명제묶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관하여 밝히신 명제(6)
논　　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보　　도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부시의 ≪악의 축≫발언 비난 외 3건

집중편집 김정일 위인상
탁월한 사상이론가
도덕의리로 빛나는 절세의 위인
명언해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시며
장군님의 낙
조국통일에 관한 사명감을 심어주시며

연　　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제1회)
자　　주 과연 어느 나라가 불량국가인가
미국에 대항하는 유럽연합
샘　　터 악의 제국의 종말
민　　주 추악한 반통일광
수　　필 3월의 봄
통　　일 조국통일만이 살 길
연방제는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
≪국보법≫은 6.15공동선언실현의 암적 존재
이북소식 평양대축제장
소개기사 주체사상탑
문　　예 ≪호남벌홍단이≫ 외 5편


구 국 전 선

470호 [주체91(2002)년 3월 1일]

회 고 록	『세기와 더불어』 (제23회)
명제묶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관하여 밝히신 명제(6)
논　설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
보　도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을 현지지도 - 카터 미국 전 대통령 부시의 「악의 축」 발언 비난 외 3건
집중편집	김정일위인상 탁월한 사상이론가 도덕의리로 빛나는 절세의 위인 명언해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다」 민족의 우수성을 빛내이시며 장군님의 낙 조국통일에 관한 사명감을 심어주시며
연　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제1회)
자　주	과연 어느 나라가 불량국가인가 미국에 대항하는 유럽연합
샘　터	악의 제국의 종말
민　주	추악한 반통일광
수　필	3월의 봄
통　일	조국통일만이 살 길 연방제는 평화통일의 유일한 방도 「국보법」은 6.15공동선언실현의 암적 존재
이북소식	평양대축제장 [소개기사] 주체사상탑
문　예	[가사] 「호남벌홍단이」 외 5편

주적 민주정부가 건설되고 보위된다는 말은 납득하기 힘든 말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으로 발전시키는 전략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은,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북측의 혁명역량과 조직적으로 결합하여야 민족민주운동의 현 수준에서 벗어나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으로 상승 · 발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은 북측의 혁명역량과 조직적으로 결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력과 투쟁만으로는 강고한 민족민주전선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남측의 민족민주운동이 북측의 혁명역량과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가 하는 방도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 문제는 복잡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그 조직적 결합이 범민련식의 통일전선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민족민주운동역량 전체와 북측의 혁명역량이 완전히 동일화됨으로써 결국 민족민주전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9.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중요성에 대하여

김철수 동지는 우리들이 ≪한국변혁의 전략적 주선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일차적으로≫ 북측의 임무로 규정하는 것은 결국 ≪국보철투쟁에 집중하자≫는 전략노선의 수정으로 귀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미자주화투쟁이 남측 지역혁명의 전략적 주선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선혁명의 전국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혁명의 전략적 주선이며 동시에 남측 지역혁명의 전략적 주선이라고 해야 오해의 소지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민족해방혁명(반미자주화투쟁)을 남측 지역혁명의 당면임무인 국보철투쟁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반미자주화투쟁에 집중하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응당한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술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민족민주운동이 민족해방혁명에서 방조적 역할과 임무에 집중하는 것은 응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측의 지역혁명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보철 투쟁을 소홀히 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은 반미자주화투쟁과 달리 북측의 혁명역량이 주도하고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방조하는 투쟁이 아니라, 반대로 민족민주운동이 주도하고 북측의 혁명역량이 방조하는 투쟁입니다.

민족민주운동에 앞장선 우리 동지들을 체포하고 구속하면서 온갖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아니라 국정원과 검찰, 경찰 같은 정권기관들이며, 저들이 우리 민족민주운동을 탄압하는 직접적인 ≪근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입니다. 반혁명 책동의 명령자는 미 제국주의자들이고, 그 명령을 따르는 집행자는 남측의 반혁명적 정권기관들입니다. 명령자를 공격하는 투쟁이 중요하다면 그 집행자를 공격하는 투쟁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군을 철거하기 위한 정치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더불어 국가보안법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투쟁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자를 공격하는 국보철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두 개의 전선≫이라는 논문에서 ≪조선반도에서 역량의 포진구도와 투쟁수준을 생각한다면 민족민주전선은 미군 철거투쟁보다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에 책임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던 표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 진의는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투쟁에도 힘을 기울이자고 강조한 것입니다. (끝)

하나 민족도 나

조국통일3대헌장

새로운 통일방안의 모색

김일성주석과 민족대단결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과 그 의미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은 또 한돌기의 자랑찬 년륜을 새기고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해야 할 웅대한 목표를 안고있는 것으로 하여 희망의 연대, 투쟁의 연대라는 의미가 부여되는 80년대의 력사적 진군이 시작된 것이다.

사회주의 건설은 이렇게 자기의 정상궤도를 따라 성공의 탑을 쌓으며 부단히 상승전진해 가고있었지만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는 그러한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분렬의 상처가 더 깊어지고 있었다. 70년대 전반기에 북과 남의 합의를 통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이 확인되고 민족공동의 강령이 마련되었지만 80년대 통일을 위한 투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리유는 3대원칙에 도전하는 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이 전례없이 엄중하게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은 전민족의 통일열기가 계속 더해가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급기야 통일을 봉쇄하는 분렬영구화 정책의 제시로 그것에 찬물을 끼얹으려 했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남조선 당국자들은 민족적 량심도, 남북공동성명을 통하여 온겨레앞에 다진 서약도 다 집어단지고 분렬주의적 로선을 추구하였다. 이 무렵에 미제와 그 추종자들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적극적 투쟁으로 유신 독재의 원흉이 파멸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에 조성된 데 질겁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웨치며 투쟁에 일떠선 광주의 인민봉기자들을 무력으로 탄압하는 파쑈적 폭거를 자행하기까지 하였다. 광주인민봉기자들에 대한 군사파쑈분자들의 폭압만행은 그 야수성과 잔인성에 있어서 력사가 알고있는 파쑈독재자들을 훨씬 릉가하는 것이였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민족분렬주의적 책동으로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난관이 가로놓이게 되었다. 그것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의해 북과 남이 하나의 조선으로 통일되느냐, 아니면 두개 조선 으로 영구히 분렬되느냐 하는 민족의 운명문제가 결정될 것이였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서된 사태의 엄중성을 통찰하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구체적으로 어떤 현실적인 방도로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숙고하시였다. 지난날 수많은 통일방안이 제시되였으나 남조선 당국자들은 통일하려는 립장에 서있지 않은데로부터 무조건 거부반응을 보여왔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통일방도를 찾아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합리적인 통일방도를 내세우는데서 중시되는 문제는 북과 남에 서로 상반되는 사회제도가 오랜 기간 존속하고 그로부터 상이한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통일문제해결에서는 북과 남에 존재하는 이 상이한 사상리념과 사회체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서로 엉켜있는 계급적 리익과 민족적 리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는 것이 그 요체였다.

지난 시기 통일에 대한 론의에서는 당연히 북남에 현존하는 이질적인 사상리념과 체제를 통합하여 하나의 리념과 체제를 가진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었다. 물론 하나의 제도에 기초한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 더없이 리상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가 존재하고 어느 일방도 자기의 것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도통일은 어차피 어느 한쪽이 먹고 먹히우는 과정을 동반하게 될 것이며 결국은 동족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동족상쟁의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북과 남이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을 그대로 둔채 통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적대되는 사상과 제도에 대한 용인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민족운명의 갈림길에서 통일을 위해서는 그 길을 택해야 한다고 보시였다. 오랜 기간 북과 남에 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여 왔다는 구체적 현실에 바탕한 가장 빠르고 확신성있는 통일방도란 결국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길뿐이였다. 이것은 그 분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무르익혀오신 통일구상이였다. 그 분께서 1960년대초에 내놓으신 남북련방제방안은 당시의 정세상황에서 통일에로 가는 로정에 거쳐야 할 과도적 조치로 제기된 것이고 통일국가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였지만 거기에는 북과 남의 사상과 제도를 용인하는 련합의 리념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였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러한 련방제리념을 민족의 운명이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갈림길에 놓인 정세의 요구에 맞게 구현하시여 연방제 형식을 통일국가형성의 방도로 정립하신 것이다.